한국금융회사의 최근 중국진출 동향과 향후 과제

유 광 열

2009. 12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머 리 말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여 최근까지 연간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지속해 오면서 금융부문에서도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시장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금융시장의 점진적 개방은 외자금융회사로 하여금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영업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한편, 한국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은 1992년 한중 양국간에 정식외교관계가 수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대내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상대적 포화상태 도달이라는 문제점,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하고 지리적·문화적으로 유사한 면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중국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하면서, 여타 외자금융회사와 더불어 중국시장 본격진출 및 영업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WTO가입 유예기간이 종료된 2006년말 이후부터 현지법인으로의 전환, 현지인 채용 및 중국고객대상 영업확대 등 현지화 노력의 강화,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취급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일반적인 행태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현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금융회사가 중국금융시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하여는 중국금융시장과 금융당국의 정책·행태 등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중국시장에 이미 선진글로벌 금융회사가 진출하여 있고 중국국내금융회사도 규모, 차입비용, 영업력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브랜드나 규모 면에서 다소 열세인 한국금융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2007년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시장 진출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중국시장의 진출 및 영업확대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과제와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여타 국가에 비하여 해외진출과 해외영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금융회사가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중국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관심있게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주중화인민공화국 한국대사관 유광열 재경관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금융회사의 정보제공과 주중 한국대사관의 김교란 행정원의 편집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필요한 조언·정보·자료 등을 제공해 주신 주중 한국금융회사협의회(은행·보험·증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이미 진출하여 현지화를 통한 영업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금융회사의 임직원이나 금융당국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12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 태 준

목 차

요 약

Ⅰ. 서 론 ····· 1

Ⅱ. 국내은행의 중국진출동향과 과제 ····· 3
1. 중국은행시장 개방과 외자은행의 중국진출 현황 ····· 3
2. 국내은행의 중국진출과정 ····· 6
3. 국내은행의 최근 중국진출동향의 주요 특징 ····· 10
4. 중국진출 국내은행의 향후 과제 ····· 15

Ⅲ. 국내보험회사의 중국진출동향과 과제 ····· 27
1. 중국보험시장 개방과 외자보험사 중국진출 현황 ····· 27
2. 국내보험사의 중국진출과정과 최근 영업동향 ····· 32
3. 중국진출 국내보험사의 주요 특징과 향후 과제 ····· 36

Ⅳ.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중국진출동향과 과제 ····· 43
1. 중국자본시장 개방과 기관투자자의 QFII·QDII투자 현황 ····· 43
2.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중국진출 현황 ····· 58
3. 중국기업 한국증시 상장동향과 전망 ····· 66
4. 한국금융투자회사의 향후 과제 ····· 68

Ⅴ. 맺음말 ····· 72

참고문헌 ····· 74

Abstract ····· 75

표 목 차

〈표 1〉 외자은행 관리조례상 지점과 현지법인 영업 비교 ····· 3
〈표 2〉 중국진출 외자법인은행 현황('09.8) ····· 4
〈표 3〉 국내은행의 지역별 · 형태별 중국진출 현황('09.9말) ····· 14
〈표 4〉 국내은행의 중국영업 관련 지표('09.9말) ····· 15
〈표 5〉 중국 내 외자은행의 자금조달 경로 ····· 22
〈표 6〉 '08년 중 외자은행의 지역별 신규진출 현황 ····· 24
〈표 7〉 외자생명보험사 현황 ····· 29
〈표 8〉 외자손해보험사 현황 ····· 31
〈표 9〉 국내보험사 중국진출 현황('09.9말) ····· 33
〈표 10〉 국내보험사 중국영업관련 지표('09.9말) ····· 36
〈표 11〉 중국 내 외자증권사 진출 현황('09.8말) ····· 44
〈표 12〉 중국 내 자산운용사 현황(M/S순) ····· 44
〈표 13〉 합작 자산운용사의 비중 ····· 48
〈표 14〉 QFII 자격취득 기관투자자 현황 ····· 49
〈표 15〉 QDII 자격취득 중국기관투자자 현황 ····· 54
〈표 16〉 홍콩 · 상해 · 심천 거래소 비교 ····· 59
〈표 17〉 홍콩 H주와 상해 A주 섹터별 비중 비교 ····· 60
〈표 18〉 한국금융투자회사의 QFII 자격취득 현황('09.9말) ····· 61
〈표 19〉 한국주식시장 투자 QDII 펀드 현황('09.8말) ····· 62
〈표 20〉 한국금융투자회사 중국진출 현황('09.9말) ····· 64
〈표 21〉 한국증시상장 외국기업 현황('09.9말) ····· 66

요 약

Ⅰ. 서 론

▣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06.12월 이후 외자금융회사의 중국진출은 그 법률적 형태, 영업범위 및 규모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종전과 다른 형태로 진행중인바, 한국금융회사도 예외가 아님.

-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업종에서 이루어진 한국금융회사의 최근까지의 중국시장 진출 동향과 향후 과제를 정리

Ⅱ. 국내은행의 중국진출동향과 과제

1. 중국은행시장 개방과 외자은행의 중국진출현황

▣ '06년말 위안화업무의 취급지역과 고객제한 등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09년 8월말 현재 11개국 31개의 외자은행이 현지법인 전환 또는 설립을 마무리하고 중국시장에서의 영업을 확대하는 중

2. 국내은행의 중국진출과정

▣ 국내은행은 '92~'99년간 수교 이후 진출기반 정비기, 2000~06년간의 한국계 기업대상 영업확장기, '07년 이후의 본격적 현지화 추진기라는 3단계 과정을 거쳐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영업 중

3. 국내은행의 최근 중국진출동향의 주요 특징

▣ 우리·하나·신한·기업은행이 현지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외환은행이 현지법인 설립 내인가를 취득하는 등 현지법인으로 빠르게 전환 중

- 취급상품도 중국개인대상 인민폐 소매영업, 직불카드, 인터넷뱅킹, 방카슈랑스, 재테크 및 파생상품 준비 등 다양화되고 있음.

▣ 중국고객수가 크게 증가하고 중국 개인과 기업으로부터의 예수금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인 지행장을 임명하거나 현지직원 채용을 확대하는 등 현지화의 기초를 빠르게 닦아 나가고 있음.

▣ '08년말 현재 중국진출 국내은행의 총자산은 외자계 전체의 약 4.1%로, 국내의 10개 은행이 현지법인 4개(외환은행 제외), 분행(지점) 31개, 지행(출장소) 18개, 사무소 5개의 형태로 진출해 있음.

4. 중국진출 국내은행의 향후 과제

▣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이 활발한 것은 시장잠재력이 풍부하고, 금융상품개발 및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자은행보다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언어적·지리적 인접성 등에 비추어 서구외자은행에 비하여 중국 내에서의 현지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임.

▣ 이러한 차이나 프리미엄을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필요

- 2011년말까지 예대비율 75%를 준수하기 위하여는 중국 개인과 기업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필요 시 대출자산유동화도 추진해 나갈 필요
-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 틈새시장의 개척, 은행별로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 강화
- 중국금융당국의 행태, 한국과는 다른 금융관행 및 재무제표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유능한 현지전문인력 확보
- 자금조달채널의 다양화, 중서부지역 진출 및 도시상업은행 인수 등을 통한 중국시장 공략 및 한국계 대기업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확대 등

Ⅲ. 국내보험사의 중국진출동향과 과제

1. 중국보험시장 개방과 외자보험사 중국진출현황

▣ 중국보험산업은 금융업 중 가장 일찍이 폭넓게 시장개방을 하였고, 중국 보험산업의 고속성장과 풍부한 시장잠재력에 기초하여 외자계 보험사는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중

- '09.6월말 현재 외자보험사는 42개로서 전체 보험사의 41% 차지, 외자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01년 0.95%에서 '08년 4.56%까지 상승

2. 국내보험사의 중국진출과정과 최근 영업동향

▣ '95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사무소형태로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05년 이후 보험시장개방에 따라 삼성화재('05), 삼성생명('05), 현대해상화재('07), LIG손해보험('09)이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이후 지점 확대 및 취급상품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 중

- '09.9월말 현재 10개 국내보험사가 현지법인 4개, 지점 5개, 사무소 12개의 형태로 중국에 진출하여 활동 중

3. 중국진출 국내보험사의 주요 특징과 향후 과제

▣ 손보사의 경우 그룹산하의 계열사와 한국계 기업물건 중심의 보험영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을 한국계 최초로 취급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는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체상해·화재보험 영업확대, 가계성보험·자동차보험 등 판매보험상품 다양화 필요
- 대리·브로커회사에 대한 지분참여를 통한 중국시장접근, 한중손해보험협회간 교류 등 추진

▣ 생보사(삼성생명)의 경우 보험상품의 특성상 초기부터 현지인(설계사)을 고용하여 중국인 대상 영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사 및 합작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종신보험·연금보험 등 판매

- 손보시장의 2.5~3배에 달하고 중국합작선의 역량 활용이 가능한 생보시장에 중국 대형기업과 합작진출 또는 중소형 보험사 인수를 통한 시장 신규진출, 기존 회사의 경우 지점(분공사) 신설의 적극적 검토
- 기존 생보사 입장에서는 판매상품의 다양화, 유능한 현지설계사 확보, 보험사의 인지도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추진

Ⅳ.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중국진출동향과 과제

1. 중국자본시장 개방과 기관투자자의 QFII · QDII 투자 현황

▣ 중국자본시장의 개방은 여타 금융업종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외자증권사는 지점 또는 독자법인 설립이 금지되어 있음.
- '09.6월말 현재 7개의 합자증권사(지분1/3 이내)가 설립·영업 중, 다만 개방 정도가 높은 자산운용사는 총 60개 중 32개사가 합작형태로 설립·영업 중

▣ 중국자본시장에 대한 외국금융회사의 주된 접근경로는 적격외국기관투자자제도(QFII)를 통하여 중국 A주시장(상해, 심천)에 투자하는 것임.
- '09.10.19 현재 89개 외자금융회사가 누계 157.2억 달러를 중국증시에 투자

▣ 중국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는 적격 국내기관투자자제도(QDII)를 통하여 '09.10.19 현재 89개 국내기관투자자가 559.5억 달러를 해외투자하였으며, 주로 홍콩, 싱가폴, 미국 등의 중국기업 관련투자가 주종을 이룸.

2.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중국진출현황

▣ 한국금융투자회사는 QFII 형태만을 통하여 '08년 중반 이후 중국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며, '09.9월말 현재 푸르덴셜, 미래에셋, 삼성투신, 한화투신이 QFII 펀드상품을 출시·운용 중이고, 우리은행, 산업은행, 한국투신운용이 비준을 받아 투자상품출시를 준비 중

- 한국금융투자회사는 '09.9월말 현재 10개 증권사 사무소, 3대 투자자문사, 1개 벤처캐피탈 사무소 등 형태로 북경과 상해에 진출

▣ 한편, QDII 자격을 지닌 중국기관투자자의 한국증시투자는 상하이모건 등 4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4개 펀드

- '09.8월말 현재 QDII 펀드를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의 펀드규모는 10개사 75.6억 달러이지만 한국투자 QDII 펀드는 총액 기준 한화 2,900억원에 불과한 실정

3. 중국기업 한국증시 상장동향과 전망

▣ 한국증시에 '07.8월 최초의 중자기업인 3NOD가 상장된 이래 적극적 중국기업의 유치노력에 따라 '09.10월 현재 7개(유가증권 3, 코스닥 4)의 중국기업이 한국증시에 상장되어 있음.

- 최근 중국기업에 대한 한국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에도 우량 중국기업의 한국증시상장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한국증시의 브랜드 파워 취약, 자국기업 해외상장에 대한 중국정부의 부정적 입장, 중국기업의 회계투명성 등에 대한 한국투자자의 불신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

4. 한국금융투자회사의 향후 과제

▣ 중국의 자본시장개방이 제한적이고 한국금융투자회사가 선진외자사에 비하여 규모나 경험 면에서 미흡하지만 '08년 중반 QFII 취득을 계기로 한중 양국자본시장에 대한 상호관심이 제고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 중국의 자산운용사 인수 또는 신규합작설립 등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중국자본시장 또는 QDII 시장에 참여 추진
- 한국투자전용 QDII 펀드출시를 위한 중국기관투자자와의 협력강화
- 중국 내 설치한 대표사무소를 매개로 하여 부동산, PF, 부실채권시장 참여, Pre-IPO 등 IB 업무의 강화
- 중국기업 한국증시 상장, 기관투자자의 한국증시 투자,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중국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협회 간 협력, 로드쇼 강화

Ⅰ. 서 론

한국금융회사의 본격적인 중국시장 진출은 2001년 12월 11일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금융시장 개방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점진적으로 외자금융회사의 영업제한을 완화해 옴에 따라 확대되어 왔다. 동 기간은 또한 한국의 주요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이 중국본토에서의 생산과 판매활동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사업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금융수요 충족 등을 위하여 한국금융회사의 진출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WTO 가입 후 5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06년 12월 외국은행의 중국 내 개인 및 기업고객에 대한 영업과 위안화 영업 등에 대한 제한이 최종적으로 해제되면서 외자금융회사의 진출은 그 법률적 형태, 영업범위 및 규모 측면에서 종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진행 중에 있다. 한국금융회사도 '07년 하반기부터 현지법인으로의 전환 등을 시작하였으나 위안화 소매영업 및 직불카드취급 인가 등 현지화를 겨냥한 본격적인 중국시장 공략은 '08년 들어서부터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08년 3/4분기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중국에 기진출한 서구 금융회사의 합병·파산 기타 영업애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중국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금융시장으로의 전이차단을 위한 모니터링과 감독을 강화하는 등 외자금융회사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정책도 다소 강화되면서 향후 외자금융회사의 중국진출이 종전보다는 다소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서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에 힘입어 내수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성장하면서 이제 세계경제의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중국금융시장 선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한국금융회사의 중국진출은, '08년 하반기 이후 한국금융회사의 본점 사정이나 중국금융당국의 한층 보수적이고 강화된 인허가정책으로 다소 정체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상당히 벗어난 한국금융회사와 이미 중국에 진출한 한국금융회사들은 중국 내에서의 영업기반 확보 및 현지화를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에 대하여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하는 중에 있다.

본 보고서는 필자가 주중 한국대사관의 재경관으로서 중국 금융당국과의 업무 접촉과 교류, 중국 내 진출한 한국금융회사의 진출지원과 교류과정에서 체득하고 경험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금융업종에서 최근까지 보여온 한국금융회사의 중국시장 진출동향과 향후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Ⅱ. 국내은행의 중국진출동향과 과제

1. 중국은행시장 개방과 외자은행의 중국진출 현황

'01.12월 WTO에 가입한 중국은 외자은행의 대상고객과 지역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 시작하여 '06년말 위안화업무의 취급지역 및 고객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외자은행에 대한 차별적 제한이 철폐된 '07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자은행은 총자산, 점포수 등 외형적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왔다.

〈표 1〉 외자은행 관리조례상 지점과 현지법인 영업 비교

비교 항목	지 점	현지법인
최소 영업자금	RMB 2억	RMB 10억
동일인 여신한도 (동일인여신/자본금)	제한 없음	자기자본의 10% 이내 (유예기간 : 2009.12.31)
예대비율 (총대출/총예금)	제한 없음	75% 이내 (유예기간 : 2011.12.31)
영업범위	현지인대상 소매업무 불가 (100만위안 이상 정기예금 가능) 신용카드 업무 불허	소매업무 제한 없음

주 : BIS비율(8%)와 유동성비율(25%)는 동일하게 적용
자료 : 재경경제부, 「금융회사 중국진출보고서」, 2007

특히 '07.4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가 HSBC, Standard Chartered, Bank of East Asia(동아은행), Citi Bank 등 외자은행에 대하여 현지법인의 전환을 허용(본인가)한 데 이어 '09년 8월말까지 11개국 31개 외자은행의 현지법인 전환 또는 설립을 승인하면서 분행과 지행개설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업무상 제약이 적은 법인은행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표 2〉 참조).

〈표 2〉 중국진출 외자법인은행 현황('09.8)

	은 행 명	국 가	모행 명칭	개 업 일	자 본 금 (위안)	점 포
1	华 商 银 行	홍 콩	Chinese Mercantile Bank	'93.06	1억 달러	2
2	宁 波 国 际 银 行	인도네시아	International Bank of Ningbo	'93.06	1억 달러	1
3	新 联 商 业 银 行	필 리 핀	Allied Commercial Bank	'93.07	4억	2
4	协 和 银 行	홍 콩	Concord Bank	'94.12.30	0.5억 달러	1
5	法 国 巴 黎 银 行 (中国) 有限公司	프 랑 스	BNP Paribas	'03.11.27	6억	3
6	渣 打 银 行 (中国) 有限公司	영 국	Standard Chartered Bank	'07.04.02	40억	52
7	汇 丰 银 行 (中国) 有限公司	영 국	HSBC	'07.04.02	80억	90
8	东 亚 银 行 (中国) 有限公司	홍 콩	The Bank of East Asia	'07.04.02	80억	67
9	花 旗 银 行 (中国) 有限公司	미 국	Citi Bank	'07.04.02	40억	31
10	星 展 银 行 (中国) 有限公司	싱 가 폴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07.05.28	40억	13
11	永 亨 银 行 (中国) 有限公司	홍 콩	Wing Hang Bank	'07.06.01	15억	7
12	瑞 穗 实 业 银 行 (中国) 有限公司	일 본	Mizuho Corporate Bank	'07.06.01	40억	9
13	恒 生 银 行 (中国) 有限公司	홍 콩	Hang Seng Bank	'07.06.01	50억	35
14	摩 根 士 丹 利 国 际 银 行 有 限 公 司	미 국	Morgan Stanley Bank	'07.06	10억	1
15	三菱东京日联银行 (中国) 有限公司	일 본	Bank of Tokyo-Mitsubishi UFJ	'07.07.02	65억	9
16	荷 兰 银 行 (中国) 有限公司	화 란	ABN AMRO Bank	'07.07.04	40억	14
17	华 侨 银 行 (中国) 有限公司	싱 가 폴	Overseas Chinese Banking Coporation	'07.08.01	35억	11
18	摩 根 大 通 银 行 (中国) 有限公司	미 국	JP Morgan Chase Bank	'07.10.11	20억	4

19	友利银行(中国)有限公司	한국	Woori Bank	'07.11.12	24억	11
20	南洋商业银行(中国)有限公司	홍콩	Nanyang Commercial Bank	'07.12.14	41억	19
21	韩亚银行(中国)有限公司	한국	Hana Bank	'07.12.24	20억	12
22	大华银行(中国)有限公司	싱가폴	United Overseas Bank	'08.01.02	30억	8
23	德意志银行(中国)有限公司	독일	Deutsche Bank	'08.01.02	28.5억	9
24	联合银行(中国)有限公司	미국	United Commercial Bank	'08.03.14	10억	4
25	新韩银行(中国)有限公司	한국	Shin Han Bank	'08.05.12	20억	9
26	中信嘉华银行(中国)有限公司	홍콩	CITIC Ka Wah Bank	'08.05.15	10억	2
27	大新银行(中国)有限公司	홍콩	Dah Sing Bank	'08.08.01	10억	4
28	法国兴业银行(中国)有限公司	프랑스	Société Générale	'08.09.16	40억	7
29	三井住友银行(中国)有限公司	일본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09.04.27	70억	7
30	企业银行(中国)有限公司	한국	Industrial Bank of Korea	'09.06.22	20억	5
31	东方汇理银行(中国)有限公司	프랑스	Credit Agricole Indosuez	'09.08.03	30억	5

자료 :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및 각은행 홈페이지, 언론보도자료 등 참조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08년말 외자은행의 총자산은 1조 3,448억 위안인데, 이는 '02년의 4.7배로 동 기간 중 중자은행의 총자산 증가속도(2.9배)를 상회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 총자산 중 외자은행 점유비율은 '02년의 1.34%에서 '08년 2.16%로 상승하였다. 점포도 '02년 180개에서 '08년말 현재 311개(외자합작은행 포함)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직원수도 '08년말에 27,182명에 이르고 있다.

외자은행의 수익성도 크게 신장되어 '08년 외자은행의 실현이익은 119.2억 위안으로 '02년(15.2억 위안)의 7.8배 수준이며, 부실채권비율도 2005년 1.1%에서 2008년에는 0.8%로 하락하였다.

한편, 점포망 열세에 대응하고 개인대상 위안화영업 추진을 위하여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재테크상품 개발 및 PB 영업강화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외자은행도 늘어가고 있다. 예컨대 Standard Chartered, Citi, HSBC, BEA, Hang Seng 등 5개 외자은행은 '08년 중 처음으로 직불카드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BEA는 '08.12월 신용카드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UBS, Citi, BNP Paribas, Standard Chartered, HSBC, BEA, Goldman Sachs 등은 중국부유층 겨냥 PB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Citi는 공항·호텔·편의점 등에 ATM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한 '07년말 현재 50개의 외자은행(지점 포함)이 금융파생상품 교역업무를 승인받아 중국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 중에 있다.

2. 국내은행의 중국진출과정

국내은행의 중국진출은 '92~'99년(제1기) 간의 진출기반 정비기, '00~'06년(제2기)의 중국진출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확장기, '07년 이후(제3기)의 중국시장에서의 본격적 현지화 추진기 등 크게 3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바, 각 진출시기별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진출기반 정비기('92~'99년)

국내은행의 중국진출은 한중수교와 역사를 같이 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은행산업 성숙, 중국으로의 기업진출확대, 중국의 금융시장개방에 따라

3단계로 도약 발전하여 왔다.

'92~'99년간의 제1기는 중국경제가 개혁개방의 경제적 성과가 아직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에 일찍 진출한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본사보증 또는 스탠바이 L/C에 기초한 달러화 중심의 대출서비스 제공에 주안점을 두었다. 해외진출 자체에 의의를 두고 수익성보다는 안전성 위주로 대출을 운영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중수교 1개월 전인 '92.7월 외환은행은 국내은행 최초로 북경에 대표처를 설립하였고, 이듬해 12월에 천진에 최초로 지점을 설립하였다. 이후 상해·북경·천진 등 한국계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점설립이 이루어져 오다가 '97년말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은행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일-상업은행 합병에 따라 우리은행(상해)이, 신한-조흥은행 합병에 따라 신한은행(천진)이, 국민-주택은행 합병에 따라 국민은행이 기존 지점의 통폐합 또는 사무소 철수의 과정을 거쳤고, 외환위기 여파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은행들의 영업활동은 일시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한편, '93.9월 양국 금융당국(당시의 재무부와 중국 인민은행)간에는 양국간 은행지점 개설요건 완화, 상호진출 시 최혜국대우, 양국 금융당국간 정례회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중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은행('94년)과 공상은행('97년)도 서울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2) 영업확장기(2000~06년)

제2기는 한국이 지점형태의 중국 내 영업을 본격화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영업 본격화가 가능했던 것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이 업그레이드된 금융시스템과 기법을 체득한데다가 당시 중국의 괄목

할 만한 경제성장 지속과 적극적 외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차이나러시(China Rush)'에 따른 금융수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2002~04년 삼성, LG, 포스코 등의 주요 대기업이 상해를 중심으로 한 강소성 지역에서 투자 및 생산규모를 확대하면서 관련 협력업체의 중국진출이 급증하였다. 이어 현대차가 북경시 산하 자동차회사와 합작형태로 중국에 진출하면서 1~2차 벤더 등이 동시에 중국에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진출지역도 한국계 기업의 진출을 반영하여 제1기의 북경·천진·상해에서 청도·연태·광조우·심천·소주·심양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영업패턴도 '90년대말 외환위기의 값비싼 경험을 토대로 수익성에 기초한 우량 대출자산 확대 등에 영업의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동 기간 중 하나은행은 청도 소재의 중국은행인 '청도국제은행'의 지분(50%, 이후 지분율 79.1%까지 확대)을 제일은행으로부터 인수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새로운 형태도 나타났다.[1] 하나은행의 청도국제은행 인수는 종전의 한국계 기업 중심의 지점영업에서 벗어나 중국기업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네트워크를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시장 내에서 현지화학습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계 은행의 활발한 진출배경에는 중국금융당국이 외환위기과정에서의 은행구조조정, 금융시스템 및 감독기법 선진화 등에서 한국계 은행과 한국금융당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는 인식이 작용한 측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계 은행도 역시 동 기간 중 중국은행이 안산('03)과 대구('06)에, 공상은행이 부산('02), 건설은행('04)과 교통은행('05)이 서울에 지점을 개설하는 등 4대 국유상업은행들이 8개 국내지점을 설치·영업중에 있다.

---

1) 청도국제은행은 '97년 한국계 기업이 밀집한 청도에 제일은행과 중국공상은행의 50:50 합작으로 설립되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04년 제일은행의 50%지분을 하나은행이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3) 본격적인 현지화 추진기

'07년 이후의 제3기는 국내은행 지점의 현지법인 전환, 개인과 기업대상 인민폐 영업의 확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2기까지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달러화 영업에 치중(소위 'follow the customer') 하였으나, 동 기간중에는 중국정부가 2001년 WTO 가입 시 약속한 시장개방계획에 따라 '06.12월 새로운 '외자은행 관리조례'를 시행하면서 위안화업무 취급지역 및 고객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외자은행의 현지법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확장속도와 취급업무 측면에서 국내은행의 중국진출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표 1〉 참조).

74개 외자은행 중 HSBC, Citi, 동아, Standard Chartered가 '07.4월 먼저 현지법인으로 전환된 후 한국의 우리은행('07.11), 하나은행('07.12), 신한은행('08.5), 기업은행('09.6)이 현지법인으로 전환되어 '09년 8월말 현재 총 31개의 외자법인은행이 영업 중이다(〈표 2〉 참조).[2] '09.7월에는 외환은행이 현지법인설립 내인가를 받아 적어도 내년초부터 현지법인으로서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08년말 외자은행의 총자산은 개인대상 소매금융이 허용되지 않던 '06년말에 비하여 68%라는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현지법인의 경우 중자은행과 동일한 규제(예대비율, 동일인 여신한도 등)를 받게 되어 지점형태에 비하여 영업관련 준수의무가 강화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신용카드업무를 포함한 위안화 소매금융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중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다.[3]

---

2) 하나은행이 종전에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청도국제은행은 외자은행에 대하여 경영권행사가 가능한 2개 이상의 은행 소유를 허용해 주지 않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먼저 20.9%의 공상은행지분을 하나은행 본점이 인수하여 하나은행 100% 소유의 도시상업은행으로 전환한 이후, 신설된 하나은행 중국법인이 청도국제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하나은행 중국법인(청도분행)에 실질적으로 흡수되었다.

지역적으로 보면 HSBC, Citi, Standard Chartered, 도쿄미쓰비시, 미즈호 등 대부분의 외자은행이 상해에 현지법인 본부를 두는 것과 달리 한국계(3개) 및 JP Morgan 등 외자은행(3개)은 후발주자로서 북경시 정부로부터 세금감면, Cash incentive 등을 받고 정치금융 행정중심도시인 북경에 자리를 잡았다. 한편, 기업은행과 외환은행은 한국계 대기업이 밀집하여 있고 아직 외자은행의 중국본부가 입주하지 않아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융회사 본점유치를 지원하고 있는 천진에 현지법인 본부를 두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3. 국내은행의 최근 중국진출동향의 주요 특징

1) 현지법인 전환의 일단락

외자은행의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07년 이후의 제3기에 들어오면서 중국진출 국내은행의 영업패턴과 조직은 근본적인 변화와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였다. 74개 외자은행 중 HSBC, Citi, 동아, Standard Chartered가 '07.4월 제일 먼저 현지법인으로 전환되었고, 한국의 우리은행('07.11), 하나은행('07.12), 신한은행('08.5), 기업은행('09.6)이 현지법인으로 전환된 데 이어, 외환은행 역시 천진에 현지법인 본점을 두는 것으로 '09.7월 내인가를 받은 상황이이서 한국의 주요 은행들이 바야흐로 현지법인작업을 마무리하고 중국본토 공략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은행(24억 위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현지법인 자본금으로 약 20억 위안을 출자하였으며, 모행에서 독립된 전산시스템과 인사, 리스크관리, 준법지원 등 별도 중국본부조직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3) 다만 신용카드 기타 다양한 업무취급과 영업점 개설 등에 대하여 건별로 순차적으로 인가해 주는 등 한국에 비하여 절차적으로 시간적으로 까다로운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점형태의 진출시기와 달리 예금 등 자금조달, 대형기업고객 확보, 금융상품 개발, 영업전략 설정 등에 있어서 중국법인 본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취급상품의 다양화

현지법인으로의 전환에 따라 중국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민폐업무의 취급이 차츰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중국법인이 '08.3월 개인대상 인민폐 영업인가를 취득·영업중이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소 지연되었던 하나은행의 인민폐 소매영업인가도 '09.2월 취득하여 '09.9월말 현재 하얼빈 분행을 제외한 전 분행(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인민폐소매 영업 내인가를 '09.9월 취득하였다. 직불카드업무는 '09.5.27 외자은행 중 여섯 번째로 우리은행이 개시한 데 이어 하나은행도 '09.11.26 직불카드를 출시하였다. 개인 재테크상품과 선물환·옵션 등 파생상품취급업무도 우리은행은 '09년초 인가를 신청하여 '09년 중 인가를 취득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고객은 '09년초 이후 중국 내에서의 인터넷뱅킹이 이미 가능하고, 하나은행은 방카슈랑스업무 인가를 '09.10월 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로부터 취득하였다. 기업은행의 경우 종전에 천진과 청도 분행(지점)에서만 허용되던 위안화 도매영업이 현지법인 전환과 동시에 전국 5개 분행에서 확대취급이 가능하게 되었다.[4)]

3) 중국기업 및 개인고객의 증가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위안화 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중국고객의 숫자

4) 위안화 도매영업은 지점설립 후 3년 이후에 가능하나, 현지법인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이 즉시 영업 가능하다.

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고객수가 법인전환 전에는 한국계 기업고객 중심으로 5,00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이미 27,000명선을 돌파하고 이 중 절반이 중국개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불카드를 취급하여 네트워크 부족이라는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시작하면서 중국개인과의 예금거래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에도 법인설립 전 6억 위안에 불과하던 예수금이 54억 위안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고객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는 등 우선 중국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유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아직 위안화 소매영업의 내인가를 받은 상태에 있지만 이미 허용되어 있는 중국기업 대상 예수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예수금증가는 작년 3/4분기 이후 불어닥친 일시적 유동성 위기 과정에서 중자은행으로부터의 자금공급을 상당부분 대체하면서 위기극복에 기여한 바 있다.

4) 중국인 지행장 임명, 현지직원 채용확대 등 현지화노력

국내은행들 모두 현지화를 위한 내부영업조직 정비 및 인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이사회 의장과 감사에 중국인 금융전문가를 임명한 데 이어 하나은행 본점에서 나온 직원도 모두 사표를 내고 하나은행 중국법인에 채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행장을 모두 중국현지인으로 채용하는 등 현지화를 위한 기초작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5] 이들 관리직 현지인들은 리테일 현지영업직원과 더불어 한국과 상이한 중국의 은행영업관행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국내은행이 현지영업을 확대해 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5) 국내의 외국은행 지점을 보면, 공상은행을 포함한 27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중 18개(66.7%) 지점에서 지점장을 한국인으로 임명하는 등 현지고급인력을 최고책임자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서병호, 2009).

나타났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이사회 멤버를 중국인으로 임명하거나 지행장에 중국인을 임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지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행장을 현지인으로 채용하여 영업을 전담토록 하고, 부지행장을 한국직원으로 충원하여 한국본행 및 중국법인과의 업무연락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지행 내 업무분장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5) 중국진출 국내은행의 현주소

'08년말 현재 우리, 하나, 신한, 기업, 외환, 산업은행 등 한국계 은행은 약 85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여 외자계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외자계 은행 전체의 자산이 은행권 총자산의 2.2%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국내은행의 중국 내 자산규모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09.9월말 현재 중국진출 국내은행은 현지법인 4개(외환은행 현지법인 설립준비위원회 별도), 분행(지점) 31개, 지행(출장소) 18개, 사무소 5개에 이르고 있다(〈표 3〉과 〈표 4〉 참조).

한국계 은행의 진출지역도 제1기 시절의 북경·천진·상해에서 제2기의 청도·연태·광조우·심천·소주·심양을 거쳐 제3기 들어서는 우리은행은 천진에, 신한은행은 무석에, 산업은행은 북경에 분행(지점)을 설립하였고, 하나은행('08.6)이 외자은행이 하나도 없는 길림성 장춘에, 국민은행('08.10)과 하나은행 중국법인('09.4)은 역시 외자은행이 하나도 없는 흑룡강성 하얼빈에 분행(지점)을 개설한 것이 눈에 띈다(〈표 3〉 참조).

〈표 3〉 국내은행의 지역별 · 형태별 중국진출 현황('09.9말)

	우 리	하 나	신 한	기 업	외 환	산 은	국 민	수 은	부 산	대 구
북 경	법인 분행 지행(2)	법인 분행	법인 분행		분행 지행(2)	본부겸 지점		사무소		
천 진	분행		분행 지행(2)	법인 분행	법인* 분행 지행					
상 해	분행 지행(3)	분행 지행	분행 지행		분행	지점		사무소	사무소	
소 주	분행			분행						
무 석			분행							
청 도		분행 지행(2)	분행 지행	분행						사무소
연 대		분행 지행		분행						
대 련					분행					
광 주						지점	지점			
심 천	분행 지행									
심 양		분행 지행		분행		사무소				
장 춘		분행								
하얼빈		분행					지점			

주 : (*)는 내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본인가취득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음을 표시
자료 : 각 은행(현지법인 · 지점) 제공

〈표 4〉 국내은행의 중국영업 관련 지표('09.9말)

	우 리	하 나	신 한	기 업	외 환	산 업
·형 태 (지점 등)	법인 1 분행 5 지행 6	법인 1 분행 7 지행 5	법인 1 분행 5 지행 4	법인 1 분행 5	(법인) 분행 4 지행 3	지 점 3 사무소 1
·자 본 금 (억 위안)	24	20	20	20	187 (백만불)	172 (백만불)
·총 인 원(명)	289	344	279	186	139	80
현지 직원	250	319	244	157	112	63
·총자산(백만불)	1,566(1,832)	1,644	980	780	1,426	1,576
대 출(백만불)	1,154(1,360)	1,024	642	391	963	975
(위안화 비중)	(63.5%)	(78%)	(54%)	(33%)	(62%)	(44%)
·예 금(백만불)	1,108	1,135	663	110	442	163
(위안화 비중)	(69%)	(73%)	(69%)	(55%)	(71%)	(26%)
·당기순이익 (백만불, '08말)	20.6(22.9)	13	11.7	8	24	17

주 : 우리은행 자산/대출/당기순이익 중 ( ) 안은 본점 관할 상해보류분행 포함 시 규모
자료 : 각 은행(현지법인·지점) 제공

4. 중국진출 국내은행의 향후 과제

1) China rush의 주된 원인

한국계 은행이 현지법인 전환과 업무다변화를 서두르고 있는 첫번째 이유는 중국은행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6)]

중국금융회사의 총자산규모는 한국의 4배 수준으로서, 이미 영국과 일본을

6)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유인에 대한 이론적·실증적인 고찰은 서병호(2009) 참조

추월하여 미국에 이은 세계2위 규모인데다 중국경제의 고성장지속에 따라 은행대출은 연평균 15~19% 성장하고 있어 자동차, 부동산, 신용카드, 개인대출, 투자상품판매 등 소매금융시장에서의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09.5월 발간된 중국의 '후룬(胡潤)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1,000만 위안(한화 20억원)이상의 재산을 가진 거액자산가는 총 82만 5,000명(지역별로 보면 북경 14만 3,000명, 광동성 13만 7,000명, 상해 11만 6,000명, 절강성 11만 500명, 복건성 3만 1,200명, 산동성 2만 7,900명 등)으로서 5~10년 내 중국이 세계 최대의 PB(프라이빗 뱅킹)시장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hina rush의 두 번째 이유는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대금리차 300bp(예금금리 2.25%, 1년만기 대출금리 5.31%)가 보장되어 예대업무에 의한 수익성이 한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데 있다. 또한 중국정부가 중국은행들의 부실가능성, 지나친 과당 경쟁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당분간 예대금리를 자유화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7)]

셋째, 한국계 은행은 적어도 금융상품개발 및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국계 은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적, 언어적, 지리적 인접성 등에 힘입어 중국 내에서의 현지화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여겨지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계 기업이 향후 중서부 지역 진출,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점도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7) '09.7월 상해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일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워크숍에서 중국인민은행(PBOC)은 예대금리의 자유화계획이 현재로는 없음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현재의 예대금리 운용방식을 정확히 표현하면 인민은행이 예·대금리를 고시하고, 개별 상업은행은 고시금리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는 고시금리의 90%를 하한으로 예금금리는 고시금리의 110%를 상한으로 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작년 3/4분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자계 은행의 중국시장 진출이 다소 정체상태에 있고 중국금융당국도 외자계 은행의 중국금융산업 발전기여도를 재평가하는 등 일시적인 소강국면을 맞고 있으나 시장잠재력이 큰 중국은행시장에 대한 외자계 은행의 진출러시 및 업무다변화를 통한 중국본토 공략은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이제 중국진출 은행은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한국계 기업에 대한 대출서비스 제공이라는 전통적인 해외진출의 관념을 뛰어넘는 근본적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본연의 소매금융업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업무를 아직 인가받지 못하여 아직 갈 길이 제법 멀다.

하지만 이미 한국의 은행들은 영업능력, 금융서비스 수준, 리스크 관리 등 제반 측면에서 중국계 은행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구계 은행 또는 서구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에 비하여 문화적·지리적·경제적 유대가 가장 밀접한 중국땅에서의 영업확대는 상대적으로 승산이 있다. 하지만 국내은행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상대적인 'Korea Premium'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하에서는 중국진출 국내은행의 향후 당면과제를 정리하였다.

2) 한국계 은행의 당면과제

가. 예대비율, 동일인 한도 등 현지법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준수

법인으로 전환한 국내은행이 당면한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예대비율(총대출/총예금, 2011년말까지 75%)과 동일인 대출한도(2009년말까지 동일기업 자본금의 10%, 동일계열 자본금의 15%) 기준을 맞추는 일이다. 일부 국내

은행은 '09.7월말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업체를 가지고 있어 '09년말까지 대출금상환 등의 방법으로 대출한도 초과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예대비율 75%를 맞추는 것이다. 사실 지점영업 단계에서는 예대비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은행들은 그동안 대출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한국계 기업에 대한 대출자산의 확대는, 상당수의 한국기업이 세무 목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을 가지고 중국에 생산법인 등을 설립하고, 소요자금을 한국계 은행 지점에서 본사보증 등에 기초하여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을 취함에 따라 가능하였다.[8)]

그러나 현지법인 전환에 따라 향후 본격적으로 중국고객과 일부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예금을 유치하지 않는다면 대출자산을 축소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진출 역사가 길고 현지법인으로 먼저 전환한 우리·하나·신한은행은 그동안 꾸준한 예금확보 노력에 힘입어 과거 300%를 상회하던 예대비율이 '09.6월말 현재 150% 이하로 낮아졌으며, 한국계 은행의 평균 예대비율은 163.4%에 이르고 있다.[9)] 향후 분행(지점)이 설립된 지역 내에서 지행(출장소)은 주로 중국기업 또는 개인대상 예수금확보를 위한 주된 창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계 은행의 자금조달 중 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이르는 반면, 한국계

8) 중국진출 국내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한국본사의 보증 등에 의거하고 있어 대출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부실기업은 아니고 대부분이 우량기업이며, 중국진출 시 세무 목적 또는 진출위험을 감안하여 과소자본으로 설립된 기업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 등에 대한 대출심사가 엄격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는 경우는 그동안 거의 드물었다.

9) 은감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08년말 외자은행 평균예대비율은 122.2%, 중자은행은 66.9%에 이르고 있다. 한편, 예대비율은 달러화·위안화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은행간 예금 등을 제외한 순 예수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은행간 예금을 포함한 예수금을 나타내는 〈표 4〉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은 자금조달 중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예금비중이 낮아 자금의 차입코스트가 높고 자금운용상 미스매치 가능성이 있어 수익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중국계 은행과의 경쟁에서 다소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따라서 수신기반과 소매네트워크 확보 차원에서 지행 설립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10] 예수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대출자산의 풀링을 기초로 유동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11]

나.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금융상품의 출시 및 취급

아직 신용카드·재테크상품·파생상품 등 다양한 업무의 취급을 위한 전문인력과 상품개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 중국기업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소매금융영업에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선진 외자은행뿐만 아니라 중자은행과 경쟁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는 일단 위안화 소매영업이 허용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예대업무 이외의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상품비준을 위한 준비 중에 있다.

또한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업무의 인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Citi, HSBC, Standard Chartered 등 오랜 중국진출 역사와 은행영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은행그룹에 비하여 자금력과 브랜드가치 면에서 열세인 만큼 다양하고

10) HSBC는 총 분지행 90개 중 지행이 70개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한다기보다도 시장성이 있는 지역에 분행으로 진출하고, 동 지역 내에 지행을 다수 설립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11) 대출자산 유동화는 결국 중국투자자에게 채권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투자고객에 대한 고지시스템의 구축 등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건별로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요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의 개발, 틈새시장의 개척, 은행별로 강점이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매시장 공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중국금융당국 행태와 은행시장관행에 대한 이해제고 및 대출심사강화

중국 금융감독당국의 행태와 은행시장 관행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리스크관리와 영업전략이 요구된다. 예컨대, 감독당국은 현지법인과 지점을 막론하고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준법지원직원의 기타업무 겸직배제, 대출마케팅과 심사승인의 분리, 자금집행 및 결제 등 Front-middle-back office 기능의 분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적 영업상황에 비춰 보면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외자은행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비용증가와 인력 과대운용(over-staffed)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예대금리마진을 보장해 주는 중국감독당국은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매우 보수적인 기준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감안한 경영이 필요하다.[12)]

또한 대출관행상으로도 만기도래 시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롤오버를 허용하는 한국적 관행이 중국 내 외자은행(지점은 예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그 대신 상환가능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대출을 우선 상환받고 적어도 일주일 이후 다시 대출을 재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한국계 기업에 대한 대출 시 이를 감안한 영업이 필요하다.[13)]

---

12) 필자가 은행·보험 등 금융감독당국의 외자담당 국장·부국장 등을 꾸준히 접촉해 본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외자은행 담당라인도 종전에 금융시장 개방을 주도하고 외자금융회사의 법인화 및 진출을 장려해 온 인사에서 원칙을 중시하고 외자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지니는 인사로 상당수 교체되어 향후 외자금융회사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정책이 다소 보수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부 외자은행에서 재테크상품 판매사고, 고객예금 횡령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07년 이후 외자법인은행의 영업과 관리경험에 비추어 관련감독 및 내부통제규정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 대출의 경우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어렵고, 부동산대출, 개인대출 등의 연체가 있는 경우 중국의 현행 금융시스템상 담보가격의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며, 담보실행을 위한 법적·실질적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한국과는 다른 금융환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현재까지는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한국본사 보증에 기초한 대출영업으로 부실채권이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고객을 현지기업과 개인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문제에 대응하고 자산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금융행태에 관한 깊은 이해와 전문인력확보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라. 현지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

현지화 영업에 있어서 핵심은 결국 중국은행영업 관행에 익숙하거나 예대업무의 현지화에 필수적인 현지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달려 있다. 현지법인으로 전환된 국내 은행의 경우 지행장 등 관리직에서 소매영업 담당직원에 이르기까지 점차 중국직원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은행의 성장속도에 비하여 금융분야 인재배출속도가 느린데다가 유수한 중자은행 또는 서구 선진 외자은행과 경쟁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한국계 은행이 현지법인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종전의 한국파견직원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현지인력 채용과 파격적인 성과급 지급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조직에 대한 충성도보다는 보수수준이라는 철저한 이윤동기에 따라 빈번하게 전직이 이루어지는 중국의 노동시장 풍토에서 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하여 나가는 것은 한국금융업계가 당면한 최대 현안과제 중 하나이다.

---

13) 만기 이후 롤오버가 이루어지면 동 여신은 요주의여신으로 분류되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마. 자금조달 채널의 다변화 및 안정적 자금조달

모행 차입, 중자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예수금을 포함하여 자금조달 채널을 더욱 다변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영업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3/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국금융시장도 경색되면서 한국계 은행(다른 외자은행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이 위안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었다. 이는 바로 위안화 자금조달의 30~50%를 중자은행으로부터의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에서의 차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위안화 예수금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중자은행의 자금공급 축소는 한국계 은행의 유동성애로를 초래한 바 있다.

다행히 '09년 들어 중국기업 예수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예수금의 규모가 크고 만기가 짧은 경우도 종종 있어 안정적 평잔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다른 자금조달방식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표 5〉 참조).

또한 중국세무당국이 외자은행이 본국의 모행 등 국외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10%의 법인소득세를 원천징수('08년부터 소급적용)하고 있으며,[14] '09년부터 영업세 부과 기준에서 더 이상 해외차입금의 지급이자 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모행 등 국외차입을 억제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5〉 중국 내 외자은행의 자금조달 경로

	모은행 차 입	중국계은행 차 입	기업예금	외자은행 차 입	개인예금	기 타
비 중(%)	37.6	25.9	18.5	8.7	8.6	0.6

자료 : Foreign Banks in China, PricewaterhouseCoopers('09.6.30)

14) 대출자산이 상대적으로 크고 모행차입 비중이 높은 일본계 은행 등 외자은행은 동 조치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여 외자은행 공동으로 '08년부터 소급적용하는 데에 대한 부당성을 소송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제기하고 있으나, 중국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른 자금조달방식의 대표적인 예는 소위 '판다본드(panda bond)'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판다본드는 비거주자가 중국에서 발행하는 위안화표시 채권을 의미하며, 외자은행으로서는 HSBC와 동아은행(Bank of East Asia)이 금년 들어 홍콩에서 위안화채권을 발행하였고 Standard Chartered와 HSBC가 중국본토에서 위안화표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계 은행이 판다본드를 발행할 경우 금리나 만기 등 발행조건이 다른 자금조달원에 비하여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한국 은행연합회는 '09.9월 중국 은행업협회와 상호 교류협력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향후 중국 내에서 영업하는 국내은행의 자금조달 기타 현안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중요한 의사소통채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 중서부지역 진출 및 도시상업은행 지분인수 등 검토

단기적으로 수익성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현지화를 통하여 중국고객에 대한 은행업무 확대를 목표로 하는 한국계 법인은행은 중국의 중서부지역에의 분행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도 연안지역에 비하여 중서부지역에 분행 등 설립 시 인가소요시간 외에 기타 요건 등을 훨씬 우대(Green Pass Policy)하면서 중서부지역으로의 외자은행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내수시장의 개척에 한국기업의 유망한 장래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한국계 은행도 청뚜, 충칭, 시안 등 중서부의 교두보지역에 분행형태의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15] 예컨대 충칭에는 HSBC, Citi, Standard Chartered

등 12개의 외자은행(분행·지행·대표처 포함)이 진출해 있고, 사천성 청뚜에는 9개의 외자은행 분행과 9개의 지행이 진출하여 있으며 이 중 7개 분행이 위안화 소매영업을 하는 등 선진 외자은행도 시장선점 차원에서 진출·영업 중이다.

〈표 6〉 '08년 중 외자은행의 지역별 신규진출 현황

	진출 도시	진출 은행	개점 점포수
동부연해지구			
장삼각	上海,杭州, 宁波,苏州	HSBC, Citi, Standard Chartered 등 8개	法人本部 1, 分行 4, 支行 5 (총 10개)
주삼각	深圳, 广州, 东莞, 珠海 厦门	Citi, Standard Chartered, BEA 등 6개	分行 2, 支行 9 (총 11개)
환발해	北京, 天津	〃	分行 4, 支行 5 (총 9개)
서 부	成都, 重庆, 西安, 昆明, 乌鲁木齐, 南宁	HSBC, Standard Chartered, BEA 등 6개	分行 3, 支行 6 (총 9개)
중 부	长沙, 郑州, 南昌, 合肥	HSBC, Standard Chartered, BEA 등 3개	分行 4 (총 4개)
동 북	沈阳, 长春, 哈尔滨	하나, 국민, BEA 등 3개	分行 2, 支行 2 (총 4개)
계	24개		47개

자료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뉴스레터('09.4)

현지화의 조기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계 법인은행 또는 지점형태로 진출한 국내은행의 경우 중국의 도시상업은행 지분인수(법상 최고한도 20%)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15) '09.10.14~15일간 주중 한국대사관, 금융감독원 북경대표처, 한국은행 북경대표처와 우리, 하나, 신한, 기업, 외환, 산업은행, 국민은행 수석대표 및 관계자는 중서부지역에의 은행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하여 충칭시 및 사천성 성도시를 방문, 금융판공실과 관할 은행감독국, 인민은행 관계자와 공동으로 '한중 금융진출상담회'를 개최하였는바, 충칭과 사천성 정부는 한국계 은행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08년말 현재 136개에 달하는 도시상업은행은 영업범위가 해당 도시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도시상업은행간 합작을 통하여 영업권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어 외자은행의 자금유입과 선진적인 경영기법의 전수를 희망하고 있는바, 지방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지에 기반을 가진 도시상업은행의 지분인수 또는 합작이 중국시장진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하나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길림은행(장춘 상업은행, 길림 상업은행 등의 합병을 통하여 탄생한 길림성 내 省급 은행)의 18.44%의 지분인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은행은 기존의 중국현지법인을 통한 영업확대와 병행하여 길림은행과의 다양한 업무제휴와 임원파견 등을 통하여 동북 3성 특히 길림성과 연변자치주의 금융시장 공략과 새로운 부대수익원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 한국계 대기업 대상의 예대업무 기타 금융서비스 제공확대

중국시장 내에서 한국계 은행의 향후 나아갈 방향은 철저한 현지화이다. 이미 중국 내의 한국기업 대상의 은행영업은 상당부분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다. 이미 한국계 은행은 이러한 시류를 인식하고 현지화의 방향으로 영업전략을 수정해 나아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국계 대기업과의 거래 특히 예금거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그동안 삼성·LG 등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국내은행의 금융서비스 제공은 매우 제한적인바, 이는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은행이 재중 일본기업과의 금융거래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현재까지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의 대기업은 이익금과 내부유보금의 재투자 등을 통하여 공장확장 등에 필요한 금융수요를 상당부분 자체 해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계열사 내의 자금과부족 문제를 계열사간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내부금융'으로 해결함으로써 은행 등 외부금융에 의한 대출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다.

하지만 국내은행 차원에서 예수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한국계 대기업과의 금융거래는 중요하며 대기업 입장에서도 한국 본사와 중국 현지법인과의 다양한 형태의 금융수요 충족, 향후 양국간 무역결제에 양국 통화가 사용될 경우에 대비하여서도 국내은행의 이용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계 대기업과의 금융거래 확대를 위하여 국내은행들은 직불카드와 재테크 상품 취급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취급, 지점 및 ATM 확충 등 네트워크 확충을 통하여 선진 외국계은행이나 중국계 은행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한국계 대기업에 제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09년 4월 20일 한중 양국 중앙은행간에 1,800억 위안 또는 38조원의 위안화·원화 통화스왑 본계약(계약서명일로부터 3년 유효)이 체결되었고, 양국 중앙은행은 5월 이후 양국 무역결제 시 또는 상대국에 진출한 자국은행의 영업자금 지원 등에 상대국 통화를 지원하는 기술적인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국제적 태환화폐가 아닌 위안화·원화의 사용을 위한 결제시스템의 구축, 위안화의 국경간 거래를 제약하는 외환관련 규정 개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중국정부도 우선적으로 홍콩, 마카오, ASEAN 국가와 우선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한중 양국간 교역에 위안화·원화가 당장 사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양국간의 무역과 금융거래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한국계 은행이 중국 내에서 영업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국내보험회사의 중국진출동향과 과제

1. 중국보험시장 개방과 외자보험사 중국진출 현황

1) 중국보험산업 연혁과 개방

중국속담에 "天有不测风云, 人有旦夕祸福"라는 말이 있다. 원래의 뜻은 "하늘에는 뜻밖의 풍운이 있고, 사람은 화와 복이 언제 올 지 알 수 없다"이지만, 많은 중국인에게는 20여년 전 중국의 제1위 생보사인 中國人壽保險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어로 아직 기억되고 있는 한자성어이다.

하지만 중국인의 국내보험업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탓인지 보험산업은 중국금융산업 중에서도 가장 일찍이, 그리고 폭넓게 대외개방을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WTO가입 양허안에 따라 '01.12월 외국인지분 50%인 합작생명보험사 설립허용, '03.12월 외국 손해보험사의 100% 출자 현지법인 설립허용에 이어, '04.12월에는 설립지역 제한과 생명보험 상품취급제한마저 철폐함으로써 외국보험사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속화되었다.

2) 중국보험산업의 현황과 특징

중국보험산업은 '90년대 후반까지 연평균 35% 내외의 고속성장세를 유지하여 오다가 '97년 외환위기 과정에서의 저성장(10%대)기간을 거쳐 2000년 이후 다시 연평균 20%를 상회하는 성장세(생명보험은 '00~'08년간 연평균 29%, 손해보험은 동 기간 중 18% 성장)를 유지하여 왔다. '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보험

업계의 보험료수입은 약 2%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보험업은 39% 성장하여 '08년 기준 보험료수입은 9,790억 위안(생명보험 7,450억, 손해보험 2,340억)에 달하고 있다.

GDP 대비 보험료수입으로 측정되는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는 중국이 3.3%로서 한국의 11.8%, 세계평균 7.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스위스재보험, '09.5). 또한 1인당 보험료를 의미하는 보험밀도(insurance intensity)는 중국이 미화 105달러로서 한국의 1,968달러, 세계평균 634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시장잠재력이 크다.

보험상품과 투자구조도 다변화되면서 중국의 보험산업이 선진국형으로 변해가고 있는 점도 보험시장 개방 이후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재테크투자를 겸하는 변액보험 등 투자연계상품의 증가, 은행·우체국 등을 통한 보험판매(방카슈랑스)가 급증하면서 보험상품과 판매채널이 다양화되고 있고, 보험료수입을 기초로 주식·펀드 등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확대 허용되면서 투자수익률이 종전에 비하여 신장되고 보험업과 여타 금융업과의 상호 연관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아직 30%대에 육박하는 저축률, 세제지원의 미비 등으로 연금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으나 고령사회의 진입과 노후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시장도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09년 상반기 기준 전체 보유대수가 6,962만대에 이르는 거대시장인데 '09년 상반기 자동차판매는 609만대로서 전년동기비 17.7%(개인승용차 판매는 347만대로서 전년동기비 23%)가 증가하면서 이미 손해보험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현재 손해율 등에서 전반적인 수익성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자동차대수의 급증과 함께 관련 보험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부진에 따른 세계보험시장의 부진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 보험업은 중국정부의 인프라투자 확대에 따른 보험료수입 증가, 주식시장의 빠른 회복에 따른 투자연계 보험상품의 수요증가 등으로 '09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3) 외자계 보험사 현황

이와 같은 중국 보험산업의 고속성장과 향후 풍부한 시장잠재력은 상대적으로 빨리 빗장이 열린 중국보험시장에 많은 외자계 보험사들의 진출을 자극하여 왔다.

'09.6월말 현재 외자계 보험사는 43개(합작생명보험 27개, 손해보험 16개)로서 전체 보험사(103개)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외자 합작생보사는 미국계 7개, 캐나다계 2개, 유럽계 11개, 대만계 3개, 일본계 1개, 한국계 1개 등이고, 외자계 손보사는 미국계 3개, 유럽계 6개, 일본계 4개, 한국계 2개 등이다(〈표 7〉과 〈표 8〉 참조).

〈표 7〉 외자생명보험사 현황

('09.6월 현재 또는 최근)

번호	회 사 명 (외자모회사)	소 속	설립일	자 본 금 (억 위안)	'07년 보험료수입(백만 위안) M/S(%)
1	友邦保险 AIA	미 국	1992.9	14	2,544 (0.36)
2	中宏人寿 Manulife	캐 나 다	1996.11	6	1,134 (0.16)
3	太平洋安泰 ING	네덜란드	1998.10	8	708 (0.10)
4	中德安联 Allianz	독 일	1999.1	14	2,984 (0.42)
5	金盛人寿 AXA	프 랑 스	1999.6	9.05	901 (0.13)
6	中保康联 Comonwealth Bank of Australia	호 주	2000.6	2	295 (0.04)

7	信诚人寿 Prudential	영 국	2000.10	19.8	3,012 (0.43)
8	恒康天安 Manulife(Hancock)	미 국	2001.2	2	127 (0.02)
9	中意人寿 Generali	이 태 리	2002.1	27	3,284 (0.47)
10	光大永明 Sun Life	캐 나 다	2002.4	12	1,665 (0.24)
11	海尔纽约人寿 New York	미 국	2002.11	8	372 (0.05)
12	首创安泰 ING	네덜란드	2002.12	7	1,257 (0.18)
13	中英人寿 Aviva	영 국	2003.1	16.35	3,545 (0.50)
14	海康人寿 AEGON	네덜란드	2003.4	12	1,270 (0.18)
15	招商信诺 CIGNA	미 국	2003.9	3.6	2,396 (0.34)
16	长城人寿 Nissay	일 본	2003.11	10	1,478 (0.21)
17	恒安标准 Standard	영 국	2003.12	13.02	1,399 (0.20)
18	瑞泰人寿 Skandia	스 웨 덴	2004.1	5.2	1,861 (0.26)
19	中美大都会 Metlife	미 국	2004.3	8	1,708 (0.24)
20	国泰人寿 Cathay Life	대 만	2005.2	8	531 (0.00)
21	华泰人寿 ACE	미 국	2005.3	7.02	705 (0.01)
22	中航三星人寿 Samsung Life	한 국	2005.7	5	34 (0.00)
23	联泰大都会 Metlife	미 국	2005.8	7	2,086 (0.30)
24	中法人寿 CNP	프 랑 스	2006.3	2	37 (0.01)
25	中新大东方人寿 Great Eastern	싱 가 폴	2006.5	3	25 (0.00)
26	新光海航人寿 HNA Life	대 만	2008.9	5	–
27	君龙人寿 台湾人寿	대 만	2008.9	2.4	–
합계	–	–	–	–	703,576 (4.92)

자료 : 보감회 웹사이트 및 중국보험연감(2008)

〈표 8〉 외자손해보험사 현황

('09.6월 현재 또는 최근)

번호	회 사 명	소 속	설 립 일	자 본 금 (억 위안)	'08년 보험료수입(만 위안) M/S(%)
1	美亚 AIU	AIG (미국)	1992.9	6	84,736 (0.35)
2	东京海上 Tokio	Tokio (일본)	1994.9	3	40,523 (0.18)
3	丰泰 Winterther	Winterther (스위스)	1997.5	2	10,204 (0.03)
4	太阳联合 RSA	RSA (영국)	1998.10	5	19,240 (0.07)
5	丘博保险 Federal	Federal (미국)	2000.9	2.2	11,152 (0.04)
6	三星 Samsung	삼성화재 (한국)	2001.4	2.84	25,922 (0.11)
7	三井住友 Mitsui Sumitomo	Mitsui Sumitomo (일본)	2001.5	5	29,371 (0.12)
8	安联 Allianz Guangzhou	Allianz (독일)	2003.2	2	21,644 (0.09)
9	日本财产 Sompo Janpan	Sompo Janpan(일본)	2003.5	5	11,844 (0.04)
10	利宝互助 Liberty Mutual	Liberty Mutual(미국)	2003.12	2.2	11,450 (0.03)
11	安盟 An Mong	An Mong (프랑스)	2004.10	2	1,822 (0.01)
12	苏黎世 Zurich	Zurich (스위스)	2006.5	2	9,771 (0.03)
13	现代财产 Hyundai Insurance	현대해상 (한국)	2007.3	2	5,918 (0.02)
14	中意财产 Generali China Insurance	CNPC(중국): Generali (이태리)	2007.4	5	2,546 (0.00)
15	爱和谊 Aioi Insurance	Aioi (일본)	2007.5	2	1,854 (0.00)
16	国家财产 Cathay Insurance	Cathay (대만)	2008.9	4	393 (0.00)
합계	-	-	-	-	288,389 (1.16)

자료 : 보감회 웹사이트 및 중국보험연감(2008)

외자보험사의 시장점유율(보험료수입 기준)은 '01년 1.95%에서 '08년 4.56%(생보 4.92%, 손보사 1.16%)까지 상승하였다. 외자은행의 시장점유율('08년 2.2%)에 비하면 외자 보험사의 시장진출이 더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작년 3/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재테크보험상품 판매 부진, 물동량 위축에 따른 적하보험 위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외자계 보험사의 영업상황도 빠르게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장강삼각주지역이 중국보험시장의 23%를 차지하는 등 연해지역의 보험시장이 훨씬 발달되어 있어 외자계 보험사는 주로 북경·상해·광동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북경·천진·심양·대련·남경·항주·광주·심천·제남에 분공사(지점)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경·사천·장사 등 내륙으로도 분공사를 설치해 나가고 있다.

2. 국내보험사의 중국진출과정과 최근 영업동향

1) 국내보험사의 진출과정

국내보험사는 '95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북경에 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LIG손보('96), 현대해상('97), 대한재보험('97) 등이 사무소형태로 진출하다가 중국의 보험시장개방에 따라 삼성화재(상해, '05.4), 삼성생명(북경, '05.7)이 현지법인으로 전환하였고, 현대해상화재('07.3)가 중국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였으며, '09.9 LIG손해보험이 한국계 보험사로는 4번째(손해보험사로는 3번째)로 남경에 본부를 두는 현지법인으로서 본인가를 취득하였다. '08년 이후 들어서 지점 설립도 빠르게 증가하여 삼성화재가 심천('08.1), 소주('08.7), 청도('09.1)에 분공사(지점)를 개설하였으며, '09년에도 중항삼성(삼성생명-Air China 합작사)이 천진('09.2)에

분공사를 개설하였다.

한편 재보험사인 코리안 리(Korean Re)는 '97년 북경에 사무소형태로 진출한 이후 본사로부터 중국으로의 재보험상품 수출신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04년 6.5만 달러에 불과하던 재보험상품 수출은 '08년에 2,345만 달러까지 증가하였고, 현재 China Re, Munich Re, Swiss Re 등 중국 내에서 선두 재보험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물량을 취급(수출)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도 '08.6월 북경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아직 중국의 보증보험시장이 이해부족, 인수능력 미비 등으로

〈표 9〉 국내보험사 중국진출 현황('09.9말)

	북경	상해	천진	남경	청도	심천	소주
삼성화재	지점 사무소	현지법인			지점	지점	지점
삼성생명 (중항합작)	현지법인 사무소		지점				
현대해상화재	현지법인 사무소	사무소					
LIG손보	사무소	사무소		현지법인			
대한생명	사무소						
교보생명	사무소						
동부화재	사무소						
흥국생명	사무소						
Korean Re	사무소						
서울보증보험	사무소						

자료 : 각 보험사(현지법인·사무소) 제공

미발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보증보험상품의 중국수출 또는 중국재보험사로부터의 출재 등 전략적 제휴 등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는 중국 전체로 보면 '09.9월말 현재 현지법인 4개, 지점 5개, 사무소 12개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표 9〉 참조).

2) 법인보험사별 주요 영업동향

삼성화재는 '05.4월 외자계 단독법인 중 최초로 기존 상해지점('01.4월 개점)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그룹 계열사 및 한국계 기업의 화재·적하·단체상해보험 등 영업을 기초로 성장하여 수입보험료가 '05년 1억 2,800만 위안에서 '08년말 2억 9,300만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06년 이후 매년 약 40% 성장하면서, 북경('06.9), 심천('08.1), 소주('08.7), 청도('09.1)에 분공사(지점)를 설치하였다. 중국기업 대상 보험도 점차 확대해 나간 결과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과 로컬부문으로부터의 수입이 총수입보험료의 10.5%까지 확대되었다. 지점수가 증가하면서 4차례의 증자가 이루어져 총자본금은 2억 8천만 위안까지 확대되었다.

중항삼성(삼성생명-Air China 50:50 합작법인)의 경우 풍부한 영업경험과 적극적인 현지화전략에 힘입어 수입보험료가 설립연도인 '05년('05.7월 설립) 164만 위안에서 '08년말에는 1억 2,700만 위안으로 급증하였고, '06년 이후 매년 약 3배씩 성장하고 있다. 또한 사업확장을 위하여 자본금도 당초 2억 위안에서 5억 위안으로 증자하였다. '07.4월부터 은행과 제휴한 방카슈랑스 영업[16]을 개시하였고, '09.10월부터는 TM채널(전화가입)도 개시하였다. 한편, 개인채널 설계사의

16) 상대적으로 네트워크가 취약한 외자생명보험사의 경우 판매채널(단체, 설계사, 방카슈랑스 등) 중 단체채널의 비중이 하락하고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09년 상반기에는 70.2%에 이르면서 은행과의 전략적 제휴 및 유리한 협상은 외자생보사의 주된 과제가 되었다.

지속적인 확충을 통하여 유니버설보험 등 판매상품을 점차 다양화해 나가고 있다. 이어 '09년에는 한발 더 나아가 2월에는 천진에서 분공사를 열었고 현재 산동성지역에 분공사 개설을 추진 중에 있다.

현대해상 중국법인은 '07.3월 설립되어 북경현대차, 하이닉스 등 범현대계열사에 대한 화재・적하・단체상해보험을 기초로 출발하여 중국인 대상 가계성 보험(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등)과 로컬 중소기업 대상 보험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08.5월부터는 한국계 보험사로서는 최초로 자동차보험(임의보험, 책임보험은 미개방)업무를 개시하면서 주중 한국 주재원・교민 대상 영업에서부터 북경현대차의 대리점과 정비점을 매개로 한 중국개인 대상 현지영업까지 폭넓고 빠르게 영업기반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보험료 수입은 '07년 4,373만 위안에서 '08년말에는 6,852만 위안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 수입의 경우 '08년 7.4백만 위안에서 '09.1~8월 중 23.1백만 위안까지 신장되었다.[17)]

LIG손보도 중국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LG그룹사 보험건물을 기반으로 출발하여 강소성에 설립되는 최초의 외자법인 손해보험사로서 강소성 소재 1,500여개 한국기업과 교민을 위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중국 주요도시 소재 한국계 대형 건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국내(손해)보험사의 중국시장진출 과정에서 제조업 중심 (범)계열사의 지원과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초기의 중국영업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국내생보사 중에서는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이 북경사무소 개설 이후 중국보험시장의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으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

17) 家電下鄕, 以舊換新 등 중국정부의 자동차내수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북경현대차의 경우 '09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비 56% 증가한 25.7만대를 판매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08년 5.5%에서 '09년 7.5%로, 국내판매순위도 '08년 7위에서 '09년 상반기 현재 4위로 도약하였는바, 북경현대차의 약진도 현대해상보험의 영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

되면서 다시 합작사 선정작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 보험사들은 비록 네임밸류에서는 선진국 보험사에 다소 뒤지는 측면이 있지만, 한국 내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체득한 상품개발과 판매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헤치고 중국 내에서의 영업을 차분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0〉 국내보험사 중국영업관련 지표('09.9말)

('09. 9월)

	삼성화재	삼성생명(합작)	현대해상화재
·형 태	현지법인 분공사 : 4(북경·청도·심천·소주) 사무소 : 1(북경)	현지법인 분공사: 1(천진) 사무소: 1(북경)	현지법인 사무소 :2(북경·상해)
·자 본 금 (억 위안)	2.8	5	2
·총 인 원	82	786	65
현지직원	72	620(영업인력)	58
·보험료수입 (백만위안/'08년말)	290	127	81

자료 : 각 보험사(법인, 사무소)제공

3. 중국진출 국내보험사의 주요 특징과 향후 과제

1) 손해보험사의 주요 특징과 과제

가. 중국기업 대상 보험영업 현지화 확대

손보사의 영업상 특징은 그룹산하의 계열사와 한국계 기업물건 중심의 보험

영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중공업 등 중국 내 그룹계열사가 주된 고객이고, 현대해상의 경우 북경현대차, 동풍열달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넷,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등 범현대그룹 계열사 기업이 주된 고객이며, LIG손보는 중국 내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 LG 계열사와 GS칼텍스·LS산전·LS전선 등 GS, LS 계열사를 주된 고객으로 하여 출발할 예정이다.

중국 내의 한국계 기업의 사무실·공장 등을 포함한 보험시장이 크게 삼성계열사, 범 LG계열사, 그리고 기타 물건으로 분류 가능하다고 볼 경우 중국 내에서 손보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체상해·화재보험 등의 취급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국기업 대상 보험영업이 전반적으로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현지화가 용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리회사를 통한 보험판매가 중국에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유능한 대리회사의 발굴을 통하여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험영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가계성 보험·자동차 보험 등 판매보험상품의 다양화

현재까지는 국내보험사의 중국영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일천함에 따라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화재·적하·단체상해보험 중심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중국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개발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인영업 초기의 관리비용 증가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해상 중국법인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계성 보험상품의 대중국고객 판매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손해보험시장의 약 3/4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시장에의 참여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아직 중국자동차보험시장의 손해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할인할증제 등이 도입되지 않아 사고 시 무조건 배상을 요구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도 존재하는 등 시장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자동차 딜러와의 꽌시(關係) 발굴·유지를 통하여 관리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고객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18]

특히 외자보험사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시장의 개방, 고속도로·지하철 등 주요 기간투자사업에 대한 보험시장 개방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국의 시장개방은 결국 시간문제라는 점에서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영업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다양화된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대리·브로커회사에의 지분참여 등 시장접근 확대

계열사의 제조업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국내보험사의 경우 브로커(중개)회사에의 지분참여를 통한 중국영업참여 및 관련경험축적도 필요하다. 중국손해보험업의 경우 한국과 같이 개별보험사가 개인설계사를 고용하고 고객을 확보해 나가는 형태보다는, 보험사는 다수의 설계사인력을 보유한 대리회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험을 판매하고 대형기업고객들은 브로커회사를 통하여 보험사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대리·브로커회사에 대한 지분참여 등을 통하여 수익원을 창출하는 한편, 향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18) 최근 중국보감회가 손보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보험사의 수익성 제고와 운전자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할인할증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보험업계에는 좋은 소식이다.

또한 코리안 리(재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본격적인 지점설립에 필요한 조건(전년말 기준 본사의 총자산이 50억 달러 상회)을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홍콩의 TPRC, 싱가폴의 ACR, 말레이시아의 Best Re 등 잠재적 경쟁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한중 손해보험협회간 교류추진

이미 3개 손해보험사가 중국시장에 진출·영업중인 만큼 한국손보협회도 중국협회와의 인적교류·정보공유 및 중국보험시장 연구강화 등을 통하여 회원사의 영업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생보사의 주요 특징과 과제

가. 중국생보시장에의 신규진입 및 지점(분공사) 확대

생명보험영업의 특징은 손해보험과는 달리 영업초기부터 현지인을 고용하여 현지인 고객대상 영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정상 생보사는 50:50 합작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의 외자생보사들은 합작파트너사의 판매네트워크와 고객기반을 활용할 목적으로 비금융업 대형기업과 손잡고 출발하였다. 외자보험사에 의한 시장잠식(생명보험시장은 손해보험시장의 2.5~3배 규모이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작의무는 달리 보면 현지화를 용이하게 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중항삼성과 같이 중국측 파트너만 잘 선정한다면, 중국 파트너의 브랜드 및 업무관련 계열사 등의 역량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국내보험사는

중국 대형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시장진출 또는 중소형 보험사 인수를 통한 시장진출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09.12월 대한생명이 절강성 산하 국유기업과 합작생보사 설립을 목표로 하여 MOU를 체결한 것도 고무적인 사실이다.

실제 중국보험당국이 시장개방 당시 손해보험과는 달리 합작법인의 설립만을 허용한 것과 중자계 보험사의 분공사 개설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외자계 보험사에 대하여 연간 최대 2개로 묵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중국보험당국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50:50 합작법인의 성격상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주주간 이견 발생으로 영업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합한 파트너 선정 및 주주간 상생적 협력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19]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 외자보험사의 중국시장 진출이 답보상태에 있으나 위기극복 이후 다시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과 보험감독당국의 외자사 인허가정책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하여 보수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항삼성의 경우 시장선점 차원에서 유망지역에 대한 지점(분공사) 신설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판매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현지화영업 강화

중항삼성의 경우 단체보험은 (삼성)관계사, Air China 관계사 및 중국 내 한국기업을 우선 주된 고객층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국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현지화영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종신보험, 연금

19) Metlife, AXA, Skandia 등이 중자기업과 합작설립한 보험사가 외자측 또는 중국측에서 내부문제 또는 외부사정을 이유로 지분매각의사를 표명하는 등 합작법인의 운영이 반드시 순탄하지만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보험 등 개인대상보험은 유능한 현지설계사 확보와 맞춤형 상품개발을 통하여 중국시장을 빠르게 공략해 나아가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 유능한 설계사의 확보

판매채널의 다양화 및 우량고객 확보를 위하여 유능한 현지설계사를 확보하는 일에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지점 등 네트워크이 취약한 상황에서 생명보험상품의 현지인 판매는 실제 설계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바,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높지 않은 국내보험사로서 유능한 설계사를 확보·유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은행부문의 과제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중국노동시장의 특성상 전문인력의 전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수한 설계사를 확보하여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직하는 현상이 외자생보사 사이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설계사의 양성 등이 생명보험 영업의 초기투자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영업초기의 단기적 수익 여부를 넘어서 다소 멀리 보고 전문인력을 확보·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독립된 IR 활동 전개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내보험회사의 인지도 제고와 중국측 판매채널 확보를 위하여 국내보험사는 중국 내 진출한 그룹사(제조업)와는 독립된 IR 또는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국내생보사 또는 합작파트너인 중국기업 모두가 보험 분야에서는 중국인에게 생소

하므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지화 영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명보험의 경우 소속 제조업 계열사와는 독립된 IR 활동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인 영업기반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Ⅳ.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중국진출동향과 과제

1. 중국자본시장 개방과 기관투자자의 QFII · QDII투자 현황

중국의 주식시장은 비유통주의 개혁이 마무리된 '06년말 이후 외형적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내 상장업체수는 2001년 1,160개에서 '09.8월 현재 1,696개로 증가하였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우리나라의 4배에 가까운 22.5조 위안에 이르고 있어 중국증시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자본시장의 개방은 비유통주 등 자본시장개혁과 위안화 관련 규제 등으로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업종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외국계 증권사는 지점 또는 독자적인 현지법인 설립이 금지되어 있으며, 실질적 경영권행사가 불가능한 중자증권사에 대한 지분투자(20% 이내), 또는 합자증권사 설립(지분 1/3 이내)의 형태로만 진출이 가능하다.[20] 이에 따라 '09.6월말 현재 Morgan Stanley, 프랑스 CLSA, 일본 Daiwa, Goldman Sachs, UBS, Credit Suisse 등 참여하는 7개의 합자증권사가 설립·영업중에 있을 뿐이다(〈표 11〉 참조).

다만 자본시장에서 개방의 정도가 가장 높은 자산운용사의 경우 '09.6월 현재 총 60개의 자산운용사 중 32개의 외자 합작자산운용사가 설립되어 국내외 주식시장 등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 중 아시아 합작은 일본 1개(Nikko), 싱가폴 1개(DBS)에 불과하다(〈표 12〉와 〈표 13〉 참조).

---

20) 합자증권사의 경우 A주식에 대한 중개업무 취급이 불가능하고 중국계 증권 또는 대기업에 대한 IB업무도 사실상 수임이 곤란하다.

〈표 11〉 중국 내 외자증권사 진출 현황('09.8말)

회 사 명	외자 주주	지 분 율	설 립 일	자 본 금 (RMB)	총 자 산 (RMB)	순 이 익 (RMB)
CICC	모건스탠리	34%	1995.4	10억	222억	6.6억
CESL	CLSA	33.3%	2002.12	5억	5억	-0.05억
SMBC	다이와증권	33.3%	2004.6	5억	4.5억	-0.06억
GSGH	골드만삭스	33%	2004.11	8억	22억	0.25억
UBSS	UBS	20%	2006.12	15억	40억	0.3억
CS	CREDIT SUISSE	33.3%	2008.12	8억	8억	-
ZD	도이치뱅크	33.3%	2009 인가획득	10억	-	-

자료 : 우리투자증권 북경대표처 조사

〈표 12〉 중국 내 자산운용사 현황(M/S순)

		중문회사명	영문회사명	펀드수	총설정액 (억 위안)	순자산가치 (억 위안)	M/S
1		华夏基金管理有限公司	China Asset Management	29	1,927.15	2,290.13	10.08%
2		博时基金管理有限公司	Boshi Fund Management	20	1,494.70	1,432.87	6.31%
3	JV	嘉实基金管理有限公司	Harvest Fund Management	20	1,497.23	1,272.00	5.60%
4		南方基金管理有限公司	China Southern Fund Management	22	1,275.87	1,221.00	5.38%
5		易方达基金管理有限公司	E Fund Management	24	1,148.68	1,217.55	5.36%
6		广发基金管理有限公司	Guangfa Fund Management	12	951.59	900.14	3.96%
7		大成基金管理有限公司	Dacheng Fund Management	20	1,099.64	840.28	3.70%
8		华安基金管理有限公司	Hua' an Fund Management	18	783.46	745.56	3.28%

9	JV	富国基金管理有限公司	Fullgoal Fund Management	18	681.71	611.33	2.69%
10		银华基金管理有限公司	Yinhua Fund Management	14	582.14	604.50	2.66%
11	JV	上投摩根基金管理有限公司	China International Fund Management	12	603.88	587.59	2.54%
12	JV	交银施罗德基金管理有限公司	Bank of Communications Schroder Fund Management	11	535.17	577.04	2.50%
13	JV	长盛基金管理有限公司	Changsheng Fund Management	16	593.90	546.77	2.41%
14		汇添富基金管理有限公司	China Universal Assets Management	9	587.70	535.88	2.36%
15	JV	融通基金管理有限公司	Rongtong Fund Management	12	536.96	515.94	2.27%
16	JV	鹏华基金管理有限公司	Penghua Fund Management	17	491.48	500.39	2.20%
17	JV	工银瑞信基金管理有限公司	ICBC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13	554.92	476.36	2.10%
18	JV	景顺长城基金管理有限公司	INVESCO Great Wall Fund Management	10	573.25	474.05	2.09%
19	JV	华宝兴业基金管理有限公司	Fortune SGAM Fund Management	14	465.54	455.77	2.01%
20		诺安基金管理有限公司	Lion Fund Management	9	538.04	452.32	1.99%
21	JV	海富通基金管理有限公司	Fortis Haitong Investment Management	12	536.75	427.70	1.88%
22		国泰基金管理有限公司	Guotai Asset Management	20	472.37	408.70	1.80%
23		长城基金管理有限公司	Greatwall Fund Management	12	518.45	406.70	1.79%
24		中邮创业基金管理有限公司	China Post and Capital Fund Management	2	476.51	373.51	1.64%
25	JV	兴业全球基金管理有限公司	AEGON-INDUSTRIAL Fund Management	7	303.59	354.95	1.56%
26	JV	建信基金管理有限责任公司	CCB Principal Asset Management	9	406.60	351.65	1.55%

27	JV	招商基金管理有限公司	China Merchants Fund Management	12	381.17	343.24	1.51%
28	JV	光大保德信基金管理有限公司	Everbright Pramerica Fund Management	8	402.78	335.67	1.48%
29	JV	国投瑞银基金管理有限公司	UBS SDIC Fund Management	13	366.07	310.94	1.37%
30	JV	泰达荷银基金管理有限公司	ABN AMRO TEDA Fund Management	12	253.67	241.06	1.06%
31	JV	中银基金管理有限公司	Bank of China Investment Management	7	254.31	221.95	0.98%
32		长信基金有限公司	Changxin Asset Management	7	284.43	214.48	0.94%
33	JV	友邦华泰基金管理有限公司	AIG Huatai Fund Management	9	240.87	187.07	0.82%
34		中海基金管理有限公司	Zhong Hai Fund Management	6	247.10	181.58	0.80%
35		万家基金管理有限公司	Wanjia Asset Management	9	213.80	167.32	0.74%
36	JV	国海富兰克林基金管理有限公司	FranklinTempleton Sealand Fund Management	7	148.10	151.10	0.67%
37		泰信基金管理有限公司	First Trust Fund Management	8	183.26	140.19	0.62%
38	JV	信诚基金管理有限公司	CITIC Prudential Fund Management	8	156.69	135.14	0.60%
39	JV	申万巴黎基金管理有限公司	SYWG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9	176.92	126.97	0.56%
40		宝盈基金管理有限公司	Baoying Fund Management	11	157.16	125.24	0.55%
41		银河基金管理有限公司	Galaxy Asset Management	10	125.83	120.29	0.53%
42	JV	农银汇理基金管理有限公司	ABC-CA Fund Management Co., Ltd	3	98.53	101.54	0.45%
43		东方基金管理有限责任公司	Orient Fund Management	6	118.57	96.36	0.42%
44	JV	国联安基金管理有限公司	Guotai Junan Allianz Fund Management	9	105.95	92.43	0.41%

45	JV	汇丰晋信基金管理有限公司	HSBC Jintrust Fund Management	6	83.47	90.29	0.40%
46		华商基金管理有限公司	Hua Shang Fund Management	4	95.37	87.13	0.38%
47	JV	信达澳银基金管理有限公司	First State CINDA Fund Management	4	83.57	83.65	0.37%
48		东吴基金管理有限公司	Soochow Asset Management	6	91.52	74.32	0.33%
49		益民基金管理有限公司	Yimin Fund Management	4	94.02	69.11	0.30%
50		华富基金管理有限公司	Huafu Fund Management	7	75.02	56.41	0.25%
51		天治基金有限公司	China Nature Fund Management	7	89.01	51.74	0.23%
52		金鹰基金管理有限公司	Golden Eagle Asset Management	4	58.94	49.39	0.22%
53	JV	诺德基金管理有限公司	Lord ABBETT China Fund Management	3	54.76	45.55	0.20%
54	JV	金元比联基金管理有限公司	KBC GOLDSTATE Fund Management	3	43.23	44.26	0.19%
55		新世纪基金管理有限公司	New Century Fund Management	3	54.00	43.74	0.19%
56	JV	中欧基金管理有限公司	Lombarda China Fund Management	5	42.85	40.13	0.18%
57		天弘基金管理有限公司	Tianhong Asset Management	4	64.58	34.20	0.15%
58	JV	民生加银基金管理有限公司	MinSheng Royal Fund Management	3	29.60	29.28	0.13%
59	JV	浦银安盛基金管理有限公司	AXA SPDB Investment Managers Co., Ltd.	3	23.72	20.05	0.09%
60	JV	摩根士丹利华鑫基金管理有限公司	Morgan Stanley Huaxin Fund Management	3	15.00	19.68	0.09%
합계				605	24,551	22,712.18	100%

자료 : Morning Star('09.8.31), JV는 합작자산운용사 표시

〈표 13〉 합작 자산운용사의 비중

구 분	운용사수	비 율	설정자산	비 율	펀드수	비 율
외자계 자산운용사	32	53.3%	10,731억 위안	43.7%	298	49.3%
중 국 자산운용사	28	46.7%	13,820억 위안	56.3%	307	50.7%
합 계	60	-	24,551억 위안	-	605	-

자료 : Morning Star('09.8.31)

따라서 현재 한국금융투자회사에 있어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은 적격외국기관투자자제도(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에 의한 인가자격 취득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21] QFII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의 기관투자자에게 중국 A주 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03.5월 UBS와 Nomura가 QFII면허를 취득한 이후 '09.10.19일 현재 89개의 외자금융회사가 QFII자격을 취득하여 누계 157.2억 달러(한도승인 기준)를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 중에 있다(〈표 14〉 참조). 최근 중국증권당국은 중국증시기반 확충 차원에서 개별 QFII의 투자한도를 종전의 8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연기금·보험사 등 중장기 QFII 자금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등 QFII 관련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다.

21) '09.9월말 현재 주로 상해와 북경을 중심으로 10개 증권사 대표사무소, 4개 투자자문·벤처캐피털, 3개 여신전문사(2개 리스사, 1개 대표사무소)가 있다(〈표 20〉 참조).

〈표 14〉 QFII 자격취득 기관투자자 현황

구 분	중문회사명	영문회사명	최근 한도 (억 불)	자 격 취득일
1	瑞士银行有限公司	UBS LIMITED	8.00	'03.05.23
2	野村证券株式会社	NOMURA SECURITIES CO.,LTD	3.50	'03.05.23
3	花旗环球金融有限公司	CITIGROUP GLOBAL MARKETS LIMITED	5.50	'03.06.05
4	摩根士丹利国际股份有限公司	MORGAN STANLEY & CO.	4.00	'03.06.05
5	高盛公司	GOLDMAN, SACHS & CO	3.00	'03.07.04
6	德意志银行股份有限公司	DEUTSCHE BANK AKTIENGESELLSCHAFT	4.00	'03.07.30
7	香港上海汇丰银行有限公司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4.00	'03.08.04
8	荷兰安智银行股份有限公司	ING BANK N.V.	3.50	'03.09.10
9	摩根大通银行	JP MORGAN & CHASE BANK	1.50	'03.09.30
10	瑞士信贷(香港)有限公司	CREDIT SUISSE (HONG KONG)LIMITED	5.00	'03.10.24
11	日兴资产管理有限公司	NIKKO ASSET MANAGEMENT CO.,LTD.	4.50	'03.12.11
12	渣打银行香港分行	STANDARD CHARTERED BANK(HONGKONG)LIMITED	0.75	'03.12.11
13	美林国际	MERRILL LYNCH INTERNATIONAL	3.00	'04.04.30
14	恒生银行有限公司	HANG SENG BANK LIMITED	1.00	'04.05.10
15	大和证券SMBC株式会社	DAIWA SECURITIES SMBC CO.LTD.	0.50	'04.05.10
16	雷曼兄弟国际公司(欧洲)	LEHMAN BROTHERS INTERNATIONAL(EUROPE)	2.00	'04.07.06
17	比尔及梅林达－盖茨基金会	BILL&MELINDA GATES FOUNDATION	1.00	'04.07.19

18	景顺资产管理有限公司	INVESCO ASSET MANAGEMENT LIMITED	2.50	'04.08.04
19	法国兴业银行	SOCIETE GENERALE	0.50	'04.09.02
20	荷兰银行有限公司	ABN AMRO BANK N.V.	1.75	'04.09.02
21	邓普敦资产管理有限公司	TEMPLETON ASSET MANAGEMENT LTD	-	'04.09.14
22	巴克莱银行有限公司	BARCLAYS BANK PLC	0.75	'04.09.15
23	德累斯登银行有限公司	DRESDNER BANK AKTIENGESELLSCHAFT	0.75	'04.09.27
24	法国巴黎银行	BNP PARIBAS	2.00	'04.09.29
25	富通银行	FORTIS BANK SA/NV	5.00	'04.09.29
26	东方汇理银行	CALYON S.A.	0.75	'04.10.15
27	加拿大鲍尔公司	POWER CORPORATION OF CANADA	0.50	'04.10.15
28	高盛国际资产管理公司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5.00	'05.05.09
29	新加坡政府投资有限公司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PTE LTD	3.00	'05.10.25
30	马丁可利投资管理有限公司	MARTIN CURRI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1.20	'05.10.25
31	美国国际集团环球投资公司	AIG GLOBAL INVESTMENT CORP.	0.50	'05.11.14
32	淡马锡富敦投资有限公司	TEMASEK FULLERTON ALPHA PTE LTD	3.00	'05.11.15
33	怡富资产管理有限公司	IF ASSET MANAGEMENT LIMITED	2.75	'05.12.28
34	日本第一生命保险相互会社	THE DAI-ICHI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2.00	'05.12.28
35	星展银行有限公司	DBS BANK LTD.	1.00	'06.02.13
36	加拿大丰业银行	THE BANK OF NOVA SCOTIA	1.50	'06.04.10

37	法国爱德蒙得洛希尔银行	LA COMPAGINE FINANCIERE EDMOND DE ROTHSCHILD BANQUE	1.00	'06.04.10
38	安保资本投资有限公司	AMP CAPITAL INVESTORS	3.00	'06.04.10
39	比联金融产品英国有限公司	KBC FINANCIAL PRODUCTS UK LIMITED	1.00	'06.04.10
40	耶鲁大学	YALE UNIVERSITY	1.50	'06.04.14
41	英国保诚资产管理(香港)有限公司	PRUDENTIAL ASSET MANAGEMENT(HK)LIMITED	3.00	'06.07.07
42	摩根士丹利投资管理公司	MORGAN STANLEY INVESTMENT MANAGEMENT INC.	2.00	'06.07.07
43	斯坦福大学	STANFORD UNIVERSITY	1.00	'06.08.05
44	大华银行有限公司	UNITED OVERSEAS BANK LIMITED	0.50	'06.08.05
45	通用电气资产管理公司	GE ASSET MANAGEMENT INCORPORATED	2.00	'06.08.05
46	施罗德投资管理有限公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2.00	'06.08.29
47	新光证券株式会社	SHINKO SECURITIES CO.,LTD	0.50	'06.09.05
48	汇丰投资管理(香港)有限公司	HSBC INVESTMENT(HK)LIMITED	3.50	'06.09.05
49	瑞银环球资产管理(新加坡)有限公司	UBS GLOBAL ASSET MANAGEMEN(SINGAPORE) LIMITED	2.00	'06.09.25
50	三井住友资产管理株式会社	SUMITOMO MITSUI ASSET MANAGEMENT COMPANY, LIMITED	3.00	'06.09.25
51	挪威中央银行	NORGES BANK	5.00	'06.10.24
52	百达资产管理有限公司	PICTET ASSET MANAGEMENT LIMITED	1.00	'06.10.25
53	哥伦比亚大学	COLUMBIA UNIVERSITY	1.00	'08.03.12
54	韩国保德信资产运用株式会社	PRUDENTIAL ASSET MANAGEMENT CO.,LTD	0.75	'08.04.07

55	荷宝基金管理有限公司	ROBECO INSTITUTIONAL ASSET MANAGEMENT B.V.	1.50	'08.05.05
56	道富环球投资管理亚洲有限公司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ASIA LIMITED	0.50	'08.05.16
57	柏金投资管理有限公司	PLATINUM INVESTMENT COMPANY LIMITED	1.50	'08.06.02
58	比利时联合资产管理有限公司	KBC ASSET MANAGEMENT N.V.	1.50	'08.06.02
59	未来资产基金管理公司	MIRAE ASSET INVESTMENT MANAGEMENT CO.,LTD	1.50	'08.07.25
60	安达国际控股有限公司	ACE INA INTERNATIONAL HOLDINGS,LTD.	1.50	'08.08.05
61	魁北克储蓄投资集团	CAISSE DE Dépot ET PLACEMENT DU Québec	2.00	'08.08.22
62	哈佛大学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ERD COLLEGE	2.00	'08.08.22
63	三星投资信托运用株式会社	SAMSUNG INVESTMENT TRUST MANAGEMENT CO., LTD	1.50	'08.08.25
64	联博有限公司	ALLIANCE BERNSTEIN LIMITED	0.50	'08.08.28
65	华侨银行有限公司	OVERSEA-CHINESE BANKING	1.50	'08.08.28
66	首域投资管理(英国)有限公司	FIRST STATE INVESTMENT MANAGEMENT (UK)LIMITED	1.20	'08.09.11
67	大和证券投资信托委托株式会社	DAIWA ASSET MANAGEMENT CO.	1.00	'08.09.11
68	壳牌资产管理有限公司	SHELL ASSET MANAFEMENT COMPANY B.V	-	'08.09.12
69	普信国际公司	T. ROWE PRICE INTERNATIONAL, INC.	1.10	'08.09.12
70	瑞士信贷	CREDIT SUISSE	2.00	'08.10.14
71	法国兴业资产管理有限公司	Société Générale ASSET MANAGEMENT SA	1.00	'08.10.14
72	大华投资管理有限公司	UOB ASSET MANAGEMENT LTD	0.50	'08.11.28
73	阿布达比投资局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2.00	'08.12.03

74	德盛安联资产管理卢森堡	ALLIANZ GLOBAL INVESTORS LUXEMBOURG S.A.	1.00	'08.12.16
75	资金国际公司	CAPITAL INTERNATIONAL, INC.	1.00	'08.12.18
76	三菱日联证券股份有限公司	MITSUBISHI UFJ SECURITIES CO., LTD.	1.00	'08.12.29
77	韩华投资信托管理株式会社	HANWHA INVESTMENT TRUST MANAGEMENT CO., LTD	0.70	'09.02.05
78	新兴市场管理有限公司	EMERGING MARKETS MANAGEMENT, L.L.C.	0.50	'09.02.10
79	DWS投资管理有限公司	DWS INVESTMENT S.A.	2.00	'09.02.24
80	韩国产业银行	THE KOREA DEVELOPMENT BANK	-	'09.04.23
81	韩国友利银行股份有限公司	WOORI BANK CO.,LTD	-	'09.05.04
82	马来西亚国家银行	BANK NEGARA MALAYSIA	2.00	'09.05.19
83	罗祖儒投资管理(香港)有限公司	LLOYD GEORGE MANAGEMENT(HK)LIMIT	-	'09.05.27
84	邓普敦投资顾问有限公司	TEMPLETON INVESTMENT COUNSEL, LLC	-	'09.06.05
85	东亚联丰投资管理有限公司	BEA UNION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	'09.06.18
86	日本住友信托银行股份有限公司	THE SUMITOMO TRUST&BANKING CO.,LTD	-	'09.06.26
87	韩国投资信托运用株式会社	KOREA INVESTMENT TRUST MANAGEMENT CO.,LTD	-	'09.07.21
88	霸菱资产管理有限公司	BARING ASSET MANAGEMENT LIMITED	-	'09.08.06
89	英国安石投资管理有限公司	ASHMORE INVESTMENT LIMITED	-	'09.09.14
합계			157.20	

자료 : Wind('09.10.19 현재)

한편 중국금융당국은 중국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차원에서 '06.4월 적격국내기관투자자제도((QDII: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를 개발, '09.10.19일 현재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89개의 기관투자자에게 559.5억 달러(상품승인 기준)의 투자를 승인한 바 있다(〈표 15〉 참조). QDII 자격을 취득한 기관은 자산운용사 30개, 보험사 25개, 은행 23개, 증권사 9개 기관이지만 QDII 기관에 의하여 설정·운용중인 펀드는 '09.8월말 현재 은행 332개(외자은행 288개), 증권사 1개, 자산운용사 10개이다. 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 중 QDII기관은 종전부터 한국투자에 제약이 없었지만 상대국 은행감독당국과 MOU가 체결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은행QDII 투자는 '08.6월 한국 금융위원회와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 간 MOU 체결을 계기로 허용됨으로써, 중국 내 모든 기관투자자가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22)]

〈표 15〉 QDII 자격취득 중국기관투자자 현황

구 분	중문회사명	기관 구분	최근 한도	자격취득/최초한도비준
1	中国平安保险(集团)股份有限公司	보험회사	88.90	'04.12.14
2	东亚银行(中国)有限公司	상업은행	1.00	'06.06.30
3	交通银行股份有限公司	상업은행	5.00	'06.06.30
4	中国银行股份有限公司	상업은행	10.00	'06.06.30
5	中国建设银行股份有限公司	상업은행	7.00	'06.06.30
6	汇丰银行(中国)有限公司	상업은행	7.00	'06.06.30
7	中国工商银行股份有限公司	상업은행	15.00	'06.06.30
8	花旗银行(中国)有限公司	상업은행	5.00	'06.08.10

22) 미국·영국·일본·싱가폴·홍콩에 대한 은행 QDII허용이 평균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한다면, QDII MOU체결을 제안한 지 1개월만인 '09.6월에 금융위원장 방중계기로 중국은감회(주석)와 MOU를 체결한 것은 최근 한중금융협력의 강화를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9	招商银行股份有限公司	상업은행	5.00	'06.08.15
10	华安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5.00	'06.08.18
11	中信银行股份有限公司	상업은행	2.00	'06.09.18
12	中国民生银行股份有限公司	상업은행	1.00	'06.09.27
13	恒生银行有限公司内地分行	상업은행	0.30	'06.09.27
14	兴业银行股份有限公司	상업은행	5.00	'06.10.18
15	渣打银行(中国)有限公司	상업은행	7.00	'06.10.24
16	中国光大银行股份有限公司	상업은행	1.00	'06.11.23
17	北京银行股份有限公司	상업은행	0.50	'06.12.11
18	中国人寿保险(集团)公司	보험회사	15.00	'06.12.14
19	中国人民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보험회사	2.38	'06.12.14
20	中国银行(香港)有限公司内地分行	상업은행	0.30	'07.01.11
21	瑞士信贷银行股份有限公司上海分行	상업은행	0.30	'07.01.30
22	中国农业银行股份有限公司	상업은행	6.00	'07.02.09
23	中国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보험회사	17.50	'07.04.10
24	华泰资产管理有限公司	보험회사	1.30	'07.04.23
25	南洋商业银行(中国)有限公司	상업은행	0.30	'07.04.29
26	泰康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보험회사	3.85	'07.06.22
27	中意人寿保险有限公司	보험회사	0.15	'07.06.22
28	华夏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50.00	'07.07.27
29	南方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50.00	'07.07.27
30	嘉实际仅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50.00	'07.07.31
31	上投摩根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50.00	'07.08.03
32	中国人民保险集团公司	보험회사	0.15	'07.08.13
33	生命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보험회사	0.09	'07.08.16
34	德意志银行(中国)股份有限公司	상업은행	0.30	'07.08.17
35	海富通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5.73	'07.08.21
36	华宝兴业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10.65	'07.08.21

37	中国国际金融有限公司	증권회사	50.00	'07.08.23
38	招商证券股份有限公司	증권회사	10.00	'07.08.30
39	上海浦东发展银行股份有限公司	상업은행	0.30	'07.08.31
40	中国太平洋保险(集团)股份有限公司	보험회사	0.67	'07.09.17
41	中国太平洋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보험회사	4.00	'07.09.17
42	中国人民健康保险股份有限公司	보험회사	0.15	'07.09.24
43	中国人民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보험회사	0.14	'07.09.26
44	长盛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7.09.29
45	工银瑞信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14.27	'07.09.29
46	中信证券股份有限公司	증권회사	-	'07.10.08
47	国泰君安证券股份有限公司	증권회사	-	'07.10.08
48	安邦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보험회사	0.65	'07.10.10
49	中国再保险(集团)股份有限公司	보험회사	3.50	'07.10.18
50	太平人寿保险有限公司	보험회사	2.13	'07.10.31
51	银华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20.00	'07.10.31
52	汇添富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7.11.02
53	华安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보험회사	1.20	'07.11.15
54	交银施罗德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20.00	'07.11.26
55	友邦保险境内分公司	보험회사	0.82	'07.11.28
56	渤海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보험회사	0.05	'07.12.18
57	华泰证券股份有限公司	증권회사	-	'07.12.26
58	国投瑞银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7.12.27
59	金盛人寿保险有限公司	보험회사	0.08	'07.12.28
60	华泰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보험회사	1.30	'07.12.31
61	光大证券股份有限公司	증권회사	-	'08.01.02
62	招商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8.01.03
63	富国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8.01.03
64	东方证券股份有限公司	증권회사	-	'08.01.03

65	易方达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8.01.03
66	大成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8.01.10
67	都邦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보험회사	0.25	'08.01.23
68	上海银行股份有限公司	상업은행	0.30	'08.01.23
69	海通证券股份有限公司	증권회사	-	'08.01.24
70	国信证券股份有限公司	증권회사	-	'08.03.02
71	博时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8.03.13
72	国泰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8.03.24
73	鹏华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8.04.25
74	诺安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8.04.30
75	景顺长城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8.05.23
76	友邦华泰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8.07.18
77	光大保德信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8.08.13
78	建信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8.08.22
79	国海富兰克林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8.08.28
80	广发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9.01.16
81	中银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9.03.01
82	泰达荷银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9.04.23
83	长信基金管理有限公司	펀드회사	-	'09.10.13
84	中信信托有限责任公司	신탁회사	-	-
85	新华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보험회사	-	-
86	上海国际信托有限公司	신탁회사	-	-
87	中国平安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	보험회사	-	-
88	中信嘉华银行	상업은행	-	-
89	中国平安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	보험회사	-	-
합계			559.51	

자료 : Wind('09.10.19 현재)

최근까지 QDII 펀드는 국내 개인투자자(초기 투자자의 95%가 개인투자자)의 투자취향과 상품에 대한 숙지도에 영향을 받아 80% 이상을 홍콩시장에 투자하거나 싱가폴, 미국 등 기타시장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주식, 즉 '중국테마' 주식에 집중되어 투자분산 정도가 낮았다. 또한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환차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주식시장 부진으로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QDII 투자가 손실을 보면서 다소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지속과 위안화절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어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QDII 투자인가규모도 확대되고 투자국가 및 품목도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중국진출 현황

1) QFII 투자동향

중국자본시장에 직접적으로 한국금융투자회사의 투자가 가능하게 된 것은 '08.4월 이후 국내 자산운용사, 증권사 또는 은행이 QFII자격을 취득한 이후부터이다. 종전에는 중국본토기업으로서 홍콩에 상장된 H주에 대하여 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홍콩 H주(150개 종목)에 비하여 종목수 및 거래량이 훨씬 많은 중국본토의 상해·심천의 A주 투자가 허용되면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국내수기업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도 가능하게 되었다(〈표 16〉 참조)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주는 대체적으로 금융주 46%, 에너지주 29% 등에 집중된 반면 A주는 금융주 30%, 에너지 29%, 산업재 9%, 소비재 13% 등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6〉 홍콩 · 상해 · 심천 거래소 비교

거래소	구 분	상 장 업체수	시가 총액 (십억 위안) (십억 HK$)	시가 총액 (조원)	특 징
상 해	A주	856			위안화, 내국인 투자전용
	B주	54			U$, 외국인전용, '01년 내국인 개방
	소 계	910	15,911	2,864	
심 천	A주	731			위안화, 내국인 투자자용
	B주	55			HK$, 외국인전용, 내국인 개방
	소 계	786	4,234	762	
총 계		1,696	20,145	3,626	
홍 콩	MAIN BOARD	1,087	10,254	1,641	
	H주	110	2,720	435	자본과 기업소재지 : 대륙
	RED CHIP	89	2,875	460	자본 : 대륙, 기업소재지 : 홍콩
	홍콩기업주식	888	4,659	745	상기 제외 홍콩기업주식
	GEM	174	45	7	Secondary Board (Growth Enterprise Market)
	H주	40	12	2	
	RED CHIP	4	1	0	
	홍콩기업주식	130	33	5	
총 계		1,261	10,299	1,648	

주 : 상해 종목수 '09.7월말, 심천 종목수 '09.8.20, 시가총액 '09.6말 기준, 홍콩은 '08말 기준
자료 : 상해 · 심천 · 홍콩 거래소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국

〈표 17〉 홍콩 H주와 상해 A주 섹터별 비중 비교

(단위 : %)

분 야	홍 콩 H주	상 해 A주
금 융	46	30
소비재(Non-cyclical)	2	6
소비재(Cyclical)	3	7
산 업	6	9
기초소재	6	9
에 너 지	29	29
유틸리티	3	4
통 신	5	2
기 술	0	3

자료 : Bloomberg('09.5)

한국금융투자회사는 '07.5월 중미전략대화를 통하여 QFII쿼타가 종전의 1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증액됨에 따라, 추가확보된 쿼타를 기초로 '08년 1/4분기부터 다시 QFII자격 인가가 재개되면서 혜택을 받게 되었다. '09.9월말 현재 한국계 금융투자회사로서는 푸르덴셜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원화투신운용이 이미 중국본토 A주 투자용 펀드상품을 출시, 운용 중에 있고, 우리은행, 산업은행, 한국투신운용이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와 외환관리국(SAFE)의 비준을 받아 투자상품을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대우증권, 현대증권 등 여타 금융투자회사도 현재 QFII자격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표 18〉 참조).

〈표 18〉 한국금융투자회사의 QFII 자격취득 현황('09.9말)

신청회사	신청일	승인일	신청한도	승인한도	수탁은행
푸르덴셜자산운용	2006.5.	2008.4.7	US$1억	US$0.75억	건 설 은 행
미래에셋자산운용	2006.12.	2008.7.25	US$4억	US$1.5억	공 상 은 행
삼 성 투 신 운 용	2006.12.	2008.8.25	US$2억	US$1.5억	중 국 은 행
우 리 은 행 (우리투자증권)	2007.5.	2009.5.4	US$2억	-	공 상 은 행
한 화 투 신 운 용	2007.6.	2009.2.5	US$0.7억	US$0.7억	씨 티 은 행
신 한 금 융 투 자	2007.8.	-	US$3억	-	도 이 치 은 행
한 국 투 신 운 용	2007.9.	2009.7.21	US$4억	-	공 상 은 행
대 우 증 권	2007.10.	-	US$2억	-	씨 티 은 행
산 업 은 행	2007.11.	2009.4.23	US$2억	-	건 설 은 행
현 대 증 권	2008.2.	-	US$2억	-	건 설 은 행

주 : 증감회(CSRC) 인가취득 이후 외환관리국(SAFE)의 외환쿼터 승인 필요
자료 : 미래에셋증권 북경대표처

중국정부는 핫머니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 누증에 따른 위안화 절상압력에도 불구하고 QFII 기관투자자가 중국증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증시 부양 차원에서 종전에 비하여 절차상 QFII인가를 용이하게 내주고 있어 한국금융투자회사의 QFII 자격 추가취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QDII의 한국투자동향

QDII자격을 취득한 중국기관투자자의 한국증시투자는 우리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한국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QDII펀드는

4개 자산운용사(난팡, 화샤, 상하이모건, ICBC-크레딧스위스)가 운용하고 있는 4개펀드로서 그 규모는 아주 미미하다. 중국자산운용사가 '09.8월말 현재 운용중인 QDII펀드의 총규모는 10개사 75.6억 달러(약 10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한국에 투자한 QDII금액은 상하이모건이 설정한 아태펀드(한국시장 11.6% 투자)를 제외하고는 3% 미만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총액으로도 약 2,900억원에 불과하다(〈표 19〉 참조).

〈표 19〉 한국주식시장 투자 QDII 펀드 현황('09.8말)

자 산 운용사	난 팡 (南方基金)	화 샤 (华夏基金)	상하이모건 (上投摩根基金)	ICBC-크레딧스위스 (工银瑞信基金)
해외 투자자문	BNY MELLON ASSET(영국 런던)	T.ROWE PRICE GROUP.INC(미국)	JF ASSET MANAGE-MENT Lt.	CRDEIT SUISSE ASSET(스위스)
중국 CUSTODIAN	공상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
해외 CUSTODIAN	The Bank Of New York Mellon	J.P.MORGAN & CHASE BANK	THE BANK OF NEW YORK MELLON	CITIBANK N.A.
주요 투자국가	중국증감회와 양해각서가 체결된 33개국[한국포함]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신흥시장 등[한국포함]	호주, 한국, 홍콩,인도, 싱가폴 등 아태지역 증권시장	중국증감회와 양해각서가 체결된 33개국가[한국포함]
한국 투자규모	·간접투자 ·INDEX, ETF 펀드에 투자 ·투자금액은 KRW 451억원, [펀드자산1.85%]	·한국주식에 투자 ·투자금액은 KRW 53억원, [펀드자산0.21%]	·한국주식에 투자 ·투자금액은 KRW 2,297억원, [펀드자산 11.64%]	·한국주식에 투자 ·투자금액은 KRW 66억원 [펀드자산 2.95%]
투자범위	·해외거래 개방식 지수펀드 ·주식공모펀드 ·홍콩증시 공개발행 및 상장주식	·해외 주식시장 주식 ·채권, 은행예금 ·펀드, 파생상품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기업 주식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 주식 ·중국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해외기업 주식

자료 : 대신증권 상해사무소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후 한국주식시장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중국의 기관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09년 들어 한국주식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삼성, LG,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이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시장점유율을 늘리며 선전하는 것에 주목하고 한국주식시장의 블루칩 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08.10(북경)과 '09.9(상해)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가 중국 QDII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자본시장 설명회의 열기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현재 QDII 투자유치에 관심이 있는 국내금융투자사들의 대중국 IR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한국증시로의 QDII 자금유치가 국내금융투자회사에는 당분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3) 대표사무소를 매개로 한 투자은행(IB)업무 등

현재까지 국내금융투자회사는 QFII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중국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상해와 북경에 설립된 증권사 대표사무소들은 QFII 및 QDII투자와 관련하여 중국의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이외에도 부동산 PF, 부실채권인수, 투자자문 및 중국기업의 증시상장과 관련된 pre-IPO・IPO 등을 한국본사를 매개로 취급하면서 간접적으로 IB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상업용 건물 등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에 국내증권사・자산운용사가 재무적 투자자 또는 주간사로 참여하여 국내시장 이자율 이상의 고수익을 거둔 사례가 종종 있으며 (예 : 펀드를 통한 상해포동지구의 미래에셋 빌딩 매입), '04년 이후 중국의 부실채권시장에 진출하여 신한은행, 굿모닝신한증권, 우리 F&I, 현대증권, KTB 네트워크 등이 중국 4대 자산관리공사(AMC) 중 장성, 화융, 동방 등 3곳의 AMC로부터 우량 부실자산을

〈표 20〉 한국금융투자회사 중국진출 현황('09.9말)

구 분	회 사 명	기관 구분	소 재 지	비 고
	[증권사]			
1	우리투자	대 표 처	북경, 상해	북경은 리서치센터
2	미래에셋	대 표 처	북경	
3	대우	대 표 처	북경	
4	HMC	대 표 처	북경	
5	삼성	대 표 처	상해	
6	한화	대 표 처	상해	
7	현대	대 표 처	상해	
8	대신	대 표 처	상해	
9	굿모닝 신한	대 표 처	상해	
10	SK	대 표 처	상해	
	[투자자문/벤처캐피탈]			
11	미래에셋	투자자문	상해	
12	한화	투자자문	상해	
13	KTB네크워크(벤처)	대 표 처	상해	
14	키움닷컴	투자자문	상해	
	[여신전문사]			
15	현대캐피탈	대 표 처	북경	
16	두산융자租賃	리 스 사	북경	
17	현대융자租賃	리 스 사	상해	

자료 : 각 금융투자회사 제공

매입한 경험이 있다. KTB 네트워크는 중국지역 전문투자펀드('04), China Optimum Fund('06)를 결성하여 유망 중국기업에 대하여 '09.9월 현재 총 17건의 투자를 진행하여, 이 중 6개 기업을 NASDAQ, NYSE 증시에 상장시켜 오는 등 활발한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다.

'09년 들어서는 중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이 확대되면서 유망한 중국기업에 대한 pre-IPO 투자 및 IPO 업무를 강화하는 증권사(사무소)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문사를 설립하여 한국과 중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에게 시장조사, 투자정보제공 및 자문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4) 여신전문 금융회사(캐피탈회사) 중국진출현황

여신전문 금융회사도 규모는 작지만 일찍부터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선 리스회사로서 중국 상무부의 비준을 받아 '두산융자조임(租賃)'과 '현대융자조임(租賃)' 이 각각 북경과 상해에 본부를 두고 영업중인바,[23] 주된 업무는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중공업에서 판매하는 건설중장비의 할부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신용리스크는 장비제조업체 또는 딜러가 부담하고 있어 큰 리스크 없이 영업이 가능한 편이다. 현대캐피탈은 북경사무소 형태로 진출하였지만, 북경현대차의 중국파트너인 북경기차와 합작캐피탈사를 설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캐피탈사의 중국진출과 수익모델 발굴은 기존에 중국에 유관 제조업체가 진출해 있으면서 중국내수용으로 판매·사용되는 관련 중장비의 판촉 차원에서 수요자에게 할부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24]

---

23) 자동차 할부금융은 자동차 할부금융법에 의하여 은감회(CBRC) 인가 사항이지만 항공기·선박 등 금융리스업을 제외한 기타 리스업은 상무부의 인가사항이며,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캐피탈 회사들은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고 은행간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3. 중국기업 한국증시 상장동향과 전망

1) 중국기업의 한국상장 추진현황

중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은 국내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 및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촉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07.8월 코스닥시장에 최초의 외자(중국)기업인 3NOD가 상장된 이래 '09.10월 현재 총 7개(유가증권 3, 코스닥 4)의 중국기업이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KRX) 북경대표처의 상장유치활동 본격화와 금년초 이후 한국증시의 빠른 회복에 따라 종전에 관성적으로 홍콩, 싱가폴, 런던증시 상장을 추진하던

〈표 21〉 한국증시상장 외국기업 현황('09.9말)

상장 시기	대상 시장	기 업 명	국 적	업 종	매 출 액	공모금액
'07.8	KOSDAQ	3NOD	중국	음향기기	589억원	300억원
'07.11	KOSPI	화풍방직	중국	방직/염색	912억원	336억원
'08.1	KOSDAQ	Cowell	중국	카메라부품	427억원	224억원
'08.12	KOSPI	연합과기	중국	섬유/피혁	780억원	132억원
'09.3	KOSDAQ	중국식품포장	중국	포장용기	383억원	90억원
'09.4	KOSDAQ	네프로 IT	일본	PC 재활용	209억원	32억원
'09.5	KOSPI	중국원양자원	중국	원양어업	721억원	533억원
'09.5	KOSDAQ	China Great Star Intl.	중국	운동화제조	1,425억원	510억원

자료 : 한국거래소(KRX) 북경 대표처

24) 제조업의 기반이 현재 없는 대우캐피탈 북경사무소는 중국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결국 '09년초 이후 철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중국기업들이 한국시장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금년 3월 이후 상장된 중국식품포장, 중국원양자원, 차이나 그레이트 스타 등은 일반투자자의 청약경쟁률이 200%를 훨씬 상회하고 공모가를 훨씬 상회하는 주가가 유지되는 등 국내투자자의 외국(중국)기업에 대한 투자열기가 한층 무르익고 있다(〈표 21〉 참조).

한편, 한국증시상장을 위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중국기업이 '09.9월말 현재 27개사에 달하고 이 중 22개사와 금년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금년 중 추가상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이후에는 연간 10개 수준의 중국기업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중국기업 상장의 애로요인

중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유치가 가시화되고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한국증시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우량 중국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중국기업 입장에서 보면 한국증시의 브랜드파워 및 인수능력이 아직 취약하고 중국정부도 자국우량기업의 해외상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25]

한국인수 관련 기관 및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국기업의 회계투명성,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불신감이 존재하여 공모 및 상장 후 주가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 시 경쟁력 있는 기업의 발굴애로, 경영진의 주가관리 및 IR에 대한 이해부족, 중국정부의 정책 및 규제불확실성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

25) 기본적으로 해외상장 승인 요건(자기자본 4억 위안, 세후이익 6천만 위안, 공모금액 5,000만 US$ 이상)이 까다로워 홍콩을 제외한 다른 증시에의 상장은 신규로 역외지주회사(SPC)를 설립하여 중국기업을 인수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데, '06.9월 이마저도 상무부와 증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4. 한국금융투자회사의 향후 과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매우 제한적인 데다가 한국금융투자회사가 선진 외자사에 비하여 규모나 경험 면에서 미흡하여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활동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08년 중반 이후 QFII 자격을 취득하고 한국증시의 중국 QDII 투자자금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 본격화에 눈을 돌리는 국내금융투자회사가 많아지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하에서는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금융투자회사의 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한다.

1) 자산운용사(투자신탁사) 설립 등을 통한 시장참여

국내금융투자회사는 자산운용사(투자신탁회사) 인수 또는 신규설립을 통한 중국증시투자 또는 QDII 시장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산운용업 시장은 외자사의 진입이 가능(49%까지 외자지분 허용)하며, 개인투자자가 70%에 이르는 중국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중국가계의 자산관리를 통하여 고수익·고성장이 가능한 시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09.6월 화신신탁 및 천도창업투자회사와 합자 자산운용사(미래에셋 지분 25%)를 설립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합작 운용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자산운용사를 설립할 경우 QFII 제한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중국자본시장에 투자가 가능한 만큼 중국기업과 시장에 대한 현실감 있는 투자정보를 취득하는 한편, 펀드상품설계 등 측면에서 국내금융투자회사의 경험과 접목이 가능할 것이다.

2) 한국투자전용 QDII 펀드출시 노력 강화

'08.10월과 '09.9월 중국에서 개최된 한국자본시장 설명회 참가경험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국기관투자자의 한국증시 및 기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증시에 유입되는 중국 QDII 투자자금의 규모가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 무역투자규모에 비하면 서구 선진국 증시에 비하여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금융투자회사는 좀 더 협력파트너와 노력하여 한국증시에 상당부분을 투자하는 QDII 펀드 상품 출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 및 블루칩 기업의 실적호전으로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고 환율도 다시 안정추세에 접어 들어 환차손 우려도 거의 없어 QDII의 한국증시투자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3) 사무소를 매개로 한 IB업무 강화

부동산 PF, 부실채권시장, pre-IPO 시장에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부실채권시장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중국 4대 AMC와 오랜 기간에 걸친 Know-how 전수와 협력관계에 있으므로 예컨대 KAMCO와 국내금융투자회사가 공동으로 우량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26] 다음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중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이 향후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중국기업의 한국상장 선행작업으로서 pre-IPO 업무, M&A, 부동산투자 또는 자문업무에서부터 시작하여 상장 이후의 증자, 회사채발행, 금융

26) KAMCO는 '07.12월 동방 AMC가 보유하던 중국 담보부 부실채권(채권액 1,050백만 위안, 매입액 406백만 위안)를 최초로 농협중앙회, 프라임저축은행과 공동으로 투자해 성공한 바 있다.

전문그룹사의 경우 중국진출 국내은행을 통한 대출과의 연계업무까지 확대취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업무다변화는 국내금융투자회사의 다양한 수익원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중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노력 강화

국내증권사들도 중국기업에 대한 IPO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기반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신한금융투자,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화증권 등이 중국기업 한국증시 상장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 등 자원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못하다.

또한 중국기업의 회계투명성 등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하여 KRX는 BIG 4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증권사 및 투자자의 의구심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유망하고 믿을 만한 중견중국기업의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뉴욕(53개 중국기업 상장), 나스닥(86개), 싱가폴(151개), 런던(65개) 등 세계 선진거래소는 '07년 이후 중국에 사무소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바, KRX의 상장유치를 위한 우량기업 발굴 로드쇼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27]

5) 정부 및 협회 차원의 협력 및 로드쇼 강화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중국시장 진출 또는 중국기관투자자의 한국투자 유치

27) 중국에 진출한 한국우량중소기업의 중국증시(심천거래소 중소기업전용시장) 상장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심천증시상장요건이 한국모회사로부터의 거래독립성 요구 등 다소 까다롭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상당부분 중국내수를 겨냥하여 영업하는 한국계 중소기업이, 중국증시에서 직접 자금조달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촉진을 위하여 한국정부 및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 중국증권당국 및 증권업협회와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01년 이후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중국증권업협회 간 직원교류, 상호방문에 이어 '08년부터는 매년 북경 또는 상해에서 자본시장 로드쇼가 개최되면서 QDII 투자자의 한국증시와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중국금융시장의 향후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지만 중국금융회사간, 그리고 외자금융회사와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감독과 금융행태의 차이 등으로 인해 외자사가 진입하여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한중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된 지 17년에 불과하고, 한국금융회사가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한 것도 상당히 최근의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중국시장은 서구시장과는 달리 한국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승산이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이다. 적어도 금융상품개발 및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중국금융회사보다 우위에 있는 측면이 있고, 서구금융회사와의 경쟁에서도 중국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언어적·지리적 인접성 및 경제무역관계의 높은 상호의존관계를 감안한다면 브랜드 면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고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금융회사 또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각 업권별 또는 회사별 강점을 살려서 중국고객에 대한 정확한 타게팅과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금융회사간 과당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지화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차질 없는 실천이 필요하며 중국에 진출한 국내금융회사간의 정보교류와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감독당국의 정책방향과 중국금융관습·행태에 대하여도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며, 중국의 사회·문화·제도의 특성상 서두르지 않고 멀리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필자의 관련 업무 근무경험에 주로 기초하여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업종별 국내금융회사의 진출현황과 향후 과제를 문제제기 및 방향제시 차원

에서 정리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시장진출전략 수립을 위하여서는 국내금융투자회사가 선진 외자금융회사 및 중국금융회사와 중국 영내에서 경쟁함에 있어서의 강점·약점, 기회와 위기요인에 기초한 SWOT분석을 통한 영업전략 설정, 우리보다 중국시장에 먼저 진출하여 중국고객을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선진 외자금융회사의 현지화전략과 행태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 등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대환, 「중국의 부실채권처리와 진출방안」, 『산은조사월보』 제616호, 2007.3.

서병호,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조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9.6.

이창영, 「중국의 금융산업 현황과 교역장벽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8.

재정경제부, 「금융회사 중국진출보고서」, 2007.9.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뉴스레터, 각 호

한국증권업협회, 「중국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현황」, 2008.12.

_____, 「중국 자본시장 발전 보고」, 2008.12.

중국국가통계국, 「中國統計年鑒(2008)」, 中国统计出版社, 2008.9.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08中国保險年鑒」, 中国保險年鑒编辑部, 2009.9.

_____, 「入世五年外资保险在中国」, 中国档案出版社, 2007.7.

중국인민은행·중국금융학회, 「2008中国金融年鑒」, 中国金融年鑒编辑部, 2008.12.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中国资本市场发展报告」, 中国金融出版社, 2008.3.

AmCham China, 「2008 White Paper: American Business in China」, 2008.

KPMG, 「Retail Banking in China: New Frontiers」, March 2007.

_____, 「Mainland China Banking Survey 2008」, November 2008.

PricewaterhouseCoopers, 「Foreign Banks in China」, June, 2009.

Wind(중국통계정보 서비스제공기관)

Abstract

Korea's financial companies' recent business trends in China and future tasks

Since 1992 when the official diplomatic ti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were established, Korea's financial companies began to involve themselves in banking operation in China, and, for the last 17 years, expanded their operations in terms of the number of branches, and the size of assets etc. Taking advantage of China' accession to WTO (2001) that made Chinese authority committed to opening financial markets to foreign business entities, Korea's several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were transformed into local corporations, thereby expanding the scope of businesses in a much faster pace. This paper reviews Korea's financial companies' business activities in mainland China, provides the up-to-date data on their activities, and finally suggests several measures for localization. It covers the area of banking, securities /asset management and insurance businesses. It gets more and more important to serve beyond typical Korean customers and to target directly Chinese customers as many financial companies are now in the form of local corporations. Well-prepared foreign financial companies in terms of localization should be able to fully exploit the potentials of the world fastest-growing markets.

한국금융연구원 자료판매 코너

총판 : 정부간행물 판매센타(02-394-0337)

지 역	서 점 명	전 화 번 호	위 치
서 울	본사 직영서점	(02) 734 - 6818	한국언론재단빌딩 www.gpcbooks.co.kr
	교보문고(본점)	(02) 397 - 3628	광화문사거리 www.kyobobook.co.kr
	영풍문고(본점)	(02) 399 - 5632	종각 www.ypbooks.co.kr
	(강남점)	(02) 6282 - 1353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리 브 로 을 지	(02) 757 - 8991	을지로 입구 www.libro.co.kr
	서 울 문 고 (반디 앤 루디스)	(02) 6002 - 6071	삼성역(무역센터내)
부 산	영 광 도 서	(051) 816 - 9500	서면로타리
	동 보 서 적	(051) 803 - 8000	태화백화점 옆
광 주	삼 복 서 점	(062) 222 - 0258	도청 옆
인터넷서점	yes 24	www.yes24.com	
	알라딘	www.aladdin.co.kr	

※ 위 코너 외에 교보문고 및 영풍문고는 각 지방 분점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유 광 열(劉 光 烈)

■ 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정책학석사)
- Univeristy of Texas at Austin(경제학박사)
- OECD 경제국 Economist
-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정책조정총괄과장, 혁신인사기획관
- (현)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재경금융관)

■ 주요 논저

-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of Public Expenditure in the Czech Republic(공저,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328, 2002.4)
-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Public Spending in Hungary(공저,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336, 2002.7)
-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in Poland(공저,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346, 2002.12)
- Assessing Fiscal Policy in Korea-Measuring cyclically-adjusted budget balance(공저, Working Papers No.03-03, 조세연구원)
- Corporate Tax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ome: 1991-2001(OECD Economic Studies No.36, 2003.1)
- Tax treatment of private pension savings in OECD countries and the net tax cost per unit contribution(공저, *OECD Economic Studies* No.39, 2004.2)
- Taxation, business environment and FDI location in OECD countries(공저,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502, 2006.8)
- Policies and International Integration: Influences on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공저, *OECD Economics Studies* No.36, 2003.1)
- The impact of ageing on demand, factor markets and growth(공저,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420, 2005)

금융리포트

한국금융회사의 최근 중국진출동향과 향후 과제

2009년 12월 23일 인 쇄
2009년 12월 28일 발 행
발 행 인 김 태 준
발 행 처 한 국 금 융 연 구 원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4-1 은행회관 5·6·7·8층
전 화 : 3705-6300 FAX : 3705-6309
http://www.kif.re.kr ; wmaster@kif.re.kr
등록 제1-1838(1995. 1. 28)

ISBN 89-503-0407-4 93320 값 6,000 원